

미얀마 민주화 위기와 포스코 해외사업: 글로벌 경영과 ESG 리스크*

공민정**
이수열***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쟁점은 최근 비즈니스 차원의 해석을 강조하는 ESG 이름으로 다시 주목 받고 있다. ESG는 경영의 모든 영역에 내재되어, 다양한 형태로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서 새로운 도전으로 등장한다. 2021년 봄, 미얀마의 군부 쿠데타와 민주화 탄압은 세계의 우려를 자아낸다. 이 상황에서 포스코와 계열사인 포스코인터내셔널이 회자되며 궁금증과 의혹을 사고 있다. 포스코그룹의 글로벌 비즈니스를 맡고 있는 포스코인터내셔널의 미얀마 사업이 군부 독재정권과 민주화 위기 상황과 연루되어 있다는 쟁점이다. 이 사례는 기업의 전략적 현안인 해외사업 개발과 확장, 기업 인수합병을 통한 글로벌 비즈니스에서 맞닥뜨릴 수 있는 ESG 쟁점을 이해하고 이를 다양한 시각으로 해석하여 대응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불확실성이 높은 정치 상황과 맞물렸을 때의 해외사업 이면에 잠재된 ESG 위험과 대응에 대한 논의의 장이다. 이 사례는 ESG 경영을 직접 다루지 않으며 도덕이나 옳고 그름을 직접 판단하기 위한 것이 아닌 온전히 경영학 교육의 토론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나 수업 토론 주제에 따라 기업 윤리 쟁점까지 폭 넓게 이야기할 수 있는 자료로 활용 가능하다.

주제어: 포스코, 포스코인터내셔널, 미얀마 군부 쿠데타, 미얀마 자원개발 사업, ESG 쟁점

1. 미얀마 군부 독재와 민주화 유혈 사태

2021년 봄, 미얀마 군부 독재 정권이 자행하는 유혈사태가 세계의 공분을 사고 있다. 미얀마 군부는 2021년 2월 1일 쿠데타를 일으켜 아웅산 수치(Aung San Suu Kyi) 국가고문과 윈 민(Win Myint) 대통령을 비롯한 민주 정부 인사들을 구금하고 비상사태를 선포했다. 윈 아웅 흘라잉(Min Aung Hlaning) 미얀마군 최고사령관이 권력을 장악해 사실상의 군부 독재 정치를 다시 시작했다. 쿠데타와 국가 비상사태를 통해 군부는 미얀마 수도인 네피도(Nay Pyi

Taw), 최대 도시인 양곤(Yangon)을 비롯한 주요 지역의 통신망을 장악했고 인터넷, 방송, 언론, 전화 등을 완전히 통제하고 있다.

미얀마의 정치는 역사적인 배경과 맞물려 매우 복잡하다. 군부 독재 역사도 길다. 미얀마는 다수를 차지하는 버마족을 포함하여 135개에 달하는 많은 부족으로 구성된 다민족 국가이다. 1886년에 영국의 식민지가 되었고 2차 세계 대전 발발 직후 건국의 아버지로 불리는 아웅 산(Aung San)이 버마인을 중심으로 독립운동을 시작하였다. 버마 독립군은 초창기에 일본 측에 서서 영국, 연합군에 맞서 싸웠지만 일본이 미얀마에 괴뢰정부를 세워 통치하자 연합

논문접수일: 2021. 08. 05. 1차 수정본 접수일: 2021. 10. 19. 게재확정일: 2021. 11. 08.

* 이 경영 사례는 특정 기업의 경영활동의 옳고 그름, 효과적인 경영 관행을 판단하기 위한 자료가 아니다. 경영학 수업 토론을 위한 용도임을 명확히 밝힌다.

** 전남대학교 경영학과, 박사과정(minjungkong@naver.com), 제1저자

*** 전남대학교 경영학과, 교수(leesuyol@jnu.ac.kr), 교신저자



사진출처: 연합뉴스 2021.02.16.

〈그림 1〉 미얀마 민주화 시위와 군경 유혈 진압 장면

군 측으로 돌아섰다. 마침내 미얀마는 1948년 버마 연방 공화국으로 공식적으로 독립하였다. 하지만 버마 족과 소수민족, 그리고 영국 식민지 시대 분할 통치(Divide and Conquer)로 촉발된 소수민족들 사이의 갈등이 커지면서 독립 이후 정치 상황은 불안정했다. 일부 소수민족의 무장투쟁이 계속되었고 미얀마 북부지역은 중국 국공내전에서 패한 국민당 패잔병에게 한때 강점되기까지 했다.

1958년 국방장관이던 네윈(Ne Win) 장군이 사회 혼란 수습을 명분으로 첫 번째 쿠데타를 일으켰다. 잠시 민간 정권에 권력을 이양했지만 1962년 두 번째 쿠데타로 집권해 사회주의 군사독재 체제를 구축했다. 미얀마에서 민주화 열기가 높아가던 1988년, 군부 독재정권은 민주화 시위 중인 3,000여 명의 대학생과 시민을 학살했다. 눈앞에서 잔혹한 시위진압 현장을 목격한 아웅산 수치(Aung San Suu Kyi)가 민주화 운동가로 변신한 계기가 되었다. 군부 정권은 네윈에서 소마웅(Saw Maung)으로, 그리고 탄 슈웨(Than Shwe)로 권력 교체가 이루어졌지만 군부 독재 체제는 변함없이 계속되었다. 1990년, 30여 년 만에 처음으로 자유선거가 재개되어 아웅산 수치

가 이끄는 국민민주연맹당(NLD)이 압도적인 의석을 차지했지만, 군부가 선거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아웅산 수치를 연금하고 당을 해산하였다. 2007년 승려들이 주도한 대규모 민주화운동이 일어났지만, 군부 정권은 역시나 유혈로 진압했다. 국제 사회의 분노가 높아졌고 미얀마에 대한 경제제재를 촉발한 사건이었다. 계속되는 민주화 요구와 미국을 비롯한 외부의 압력이 높아지자 타협책으로 군부의 기득권을 보장하는 선에서 정권을 이양하는 형태로 민주화를 조금씩 진척시켰다. 2015년 선거를 통해 비로소 아웅산 수치가 이끄는 문민정부가 들어서게 되었고 국제사회도 미얀마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기 시작했다(위키백과, 2021.05.15.).

미얀마의 봄날도 잠시. 2020년 미얀마 총선에서 아웅산 수치의 집권 여당 NLD당이 또다시 압도적인 표 차이로 대승을 거두게 되자 군부는 선거 과정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선거 결과를 수용하지 않았다. 결국 몇 달 뒤 쿠데타가 일어났고 미얀마의 민주화에 대한 모든 것이 부정되었다. 이 쿠데타를 반대하는 시위가 거세지자 군부는 군경을 동원하여 무력으로 진압하였다. 군인과 경찰은 시민에게 총격을 가

했고 쿠데타 이후 두 달간 유혈사태로 숨진 시민은 600명을 넘어섰다(연합뉴스, 2021.04.08.).

미얀마는 벵골 만을 해역으로 삼고 방글라데시, 인도, 중국, 라오스, 태국과 국경을 맞대고 있다. 지리적 요충지로 인도차이나반도에서 가장 큰 면적을 차지한다. 대략 한반도 넓이의 세 배 규모이며 세계에서 40번째로 큰 나라이다. 2019년 기준 미얀마의 국내총생산(GDP)은 760억 9천만 달러로 세계 경제에서 71번째 규모이다. 2000년 GDP는 89억 천만 달러에서 20년간 8.5배 성장했다(세계은행 홈페이지, 2021.05.15). 미얀마는 세계에서 경제 성장률이 가장 높은 나라 중 하나다. 미얀마의 대표 수출 품목은 고무이며 쌀, 콩, 면화 등 농산물, 그리고 루비로 대표되는 광물이다(윤동진, 1999).

II. 미얀마 유혈 사태 직후 포스코의 미디어 노출

미얀마 민주화 시위대에 대한 군부의 유혈 진압 소식에 세계의 우려가 점점 커지던 2021년 2월 말, 국내 미디어에 난데없이 포스코와 미얀마에 관한 기사들이 노출되기 시작했다. 초기에 등장한 기사는 쿠데타가 포스코의 미얀마 현지 사업에 어떤 영향을 줄지 우려하는 내용이었다.

“미얀마 군부의 쿠데타로 현지에 진출한 국내 기업들도 비상대책 마련에 나서는 등 초비상이 걸렸다. 수출입 은행에 따르면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간 국내 기업이 미얀마에 설립한 법인 및 지사는 107곳으로 투자 규모는 6억 6,800만 달러에 이른다. 1990년대 중반부터 미얀마에 일찌감치 네트워크를 구축했던 대우인터내셔널을 인수한 포스코인터내셔널은 2013년부터 미얀마 가

스전 사업을 진행 중이다. 미얀마 해상 가스전에서 가스를 생산해 중국 등에 판매하고 있다. 2019년 포스코인터내셔널은 연간 최대 물량인 2,162억㎥를 생산, 판매했다. 여기에 추가로 마하 가스전을 신규로 탐사하고 있다. 포스코인터내셔널은 지난달 현대중공업과 미얀마 가스전 3단계 개발을 위해 계약을 체결했다. 군사 쿠데타로 투자계획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한국경제신문, 2021.02.02.; 이투데이, 2021.02.26. 기사에서 발췌)

하지만 현지 진출한 국내 기업 상황을 다룬 일상적인 경제 기사들은 금방 자취를 감추었고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이야기들이 빠르게 자리를 메워갔다.¹⁾

“서울 포스코 앞 “미얀마 쿠데타 규탄” 외침, 왜?” 한겨레신문, 2021.02.22.

“청년단체 등 “포스코, 미얀마군 기업과 관계 청산” 요구” 연합뉴스, 2021.02.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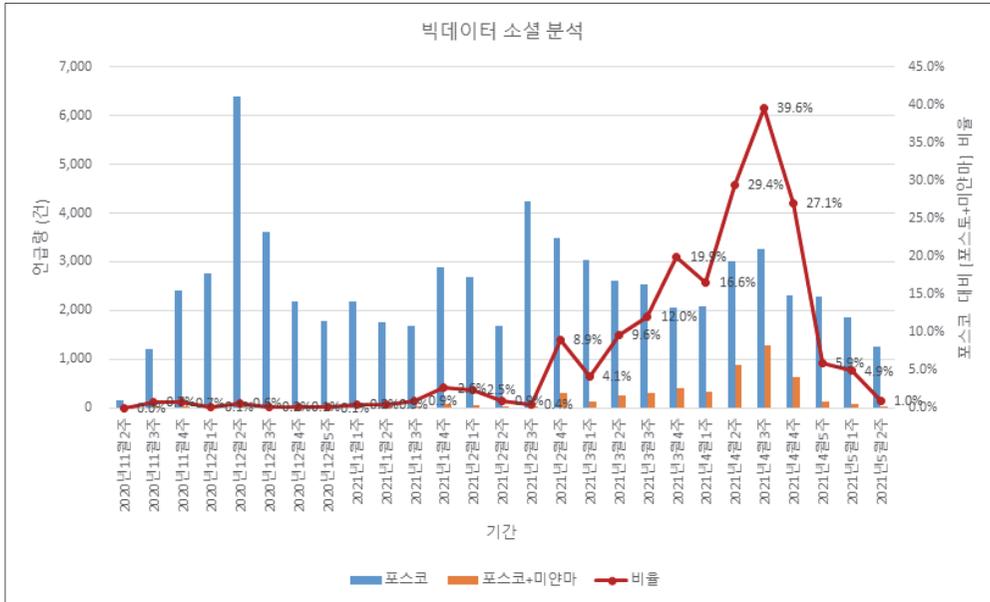
“미얀마 쿠데타 연대 논란…포스코 “군 배당금 지급 중단” 해명...” 더팩트, 2021.02.25.

“[특파원 리포트] 포스코가 미얀마에 무슨 투자를 했길래?” KBS 뉴스, 2021.03.11.

“미얀마 군부와 관계없다더니…군함도 구매대행” MBC 뉴스데스크, 2021.04.06.

포스코는 미얀마 유혈사태와 어떤 관련이 있어서 미디어 노출이 급증했던 것일까? 사실 여부를 떠나 ‘미얀마 군부와 결탁한 포스코…’라는 의혹이 빠르게 사회관계망을 통해 급속히 확산되기 시작했다. 실제로 여러 매체와 사회관계망에 오르내린 포스코 관련 언급 중에서 2021년 2월 이후에는 미얀마 검색어를 포함한 내용 노출이 급격하게 늘어나게 된다(그림 2). 2021년 11월 이후 6개월간 여러 매체와 사회관계망에서 오르내린 포스코 언급 중에서 2021년 2월 이후 미얀마 검색어를 포함한 내용 노출이 급격하게 늘어났다. 포스코 단일 검색어 분량 중 40%에 육박

1) 아래 기사 제목은 예시이며 이들 내용은 참고문헌 출처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그림 2〉 미얀마 사태 전후 포스코의 사회관계망 노출 빈도 변화

하는 내용이 미얀마에 대한 것일 때도 있었다.²⁾

III. 포스코의 미얀마 사업과 ESG 리스크

3.1 포스코의 미얀마 사업

미얀마는 중국, 인도, 동남아시아 국가를 잇는 지리적 요충지이면서 천연자원이 풍부하여 잠재력이 높은 신흥 시장으로 관심을 끌어들였다. 군부 독재 사회주의 경제체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정치적 불확실성이 높은 곳이지만 그 위험을 감수할 때 주어지는 혜택의 유혹 또한 상당한 곳이다. 국제사회의 경제 제재가 반복되는 상황에서도 2000년 이후 GDP가 850%나 성장하면서 미얀마는 외국 기업에게 새로

운 투자처로서 매력을 과시하였다(세계은행 홈페이지, 2021.05.15.).

글로벌 시장 확대를 꿈꾸는 포스코에게 미얀마는 중요한 곳이다. 포스코의 미얀마 사업은 두 개 회사가 맡고 있다. 포스코인터내셔널(이후부터 ‘포스코 인터’로 표기), 그리고 미얀마 현지법인인 포스코 C&C이다. 포스코인터는 2010년 대우인터내셔널을 인수한 포스코 계열사이다. 포스코인터는 종합상사로서 포스코 그룹에서 해외사업 개발과 무역을 전담하고 있다. 이 회사는 무역과 직접 투자 방식으로 미얀마와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였다. 무역은 종합상사의 전통적인 사업 영역으로 한국 제품의 미얀마 수출을 담당한다. 미얀마 직접 투자로는 가스전 사업과 부동산 호텔 사업이 있다. 사회주의 경제인 미얀마에서는 대체로 정부와 합작투자 형태로 사업을 하게 된다. 미얀마 가스전은 포스코인터에서 차지하

2) 빅데이터를 이용한 소셜분석은 썬트렌드(www.some.co.kr)서비스를 이용해 조사하였다. 포스코 단일 검색어, 미얀마를 포함한 포스코 검색어를 지정해 해당 기간에 블로그, 트위터, 인스타그램 등 사회관계망 노출 빈도이다.

는 비중이 가장 높은 사업이다. 포스코인터의 전신인 대우인터내셔널은 2004년 합작투자를 통해 슈웨(Shwe) 지역 가스전 채굴 사업권을 얻었다. 이 사업은 미얀마국영석유가스회사(MOGE: Myanmar Oil and Gas Enterprise), 한국석유가스공사가 지분을 투자했다. 가스전 사업은 본 궤도에 올라 2013년부터 수익을 내고 있다. 슈웨 가스전에서 채굴한 세일가스는 중국으로 수출되는데 이 가스전 사업으로 포스코인터가 얻은 이익은 2019년 기준으로 4,745억 원에 달했다. 포스코인터가 가스전 사업의 합작투자 지분으로 MOGE로 지불하는 채굴권 대금도 2018년에 1억9,400만 달러(약 2,192억 원)를 넘어섰다. 포스코인터는 미얀마 부동산과 호텔업에도 관여하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2017년 9월부터 영업을 시작한 양곤市的 롯데호텔 투자이다. 미얀마 국방부 옛 건물터를 이양 받아 포스코인터가 투자하여 건설하였고 호텔 운영은 롯데호텔이 맡고 있다(포항MBC, 2021.03.18.; 포항MBC, 2021.04.13.; 한국경제신문, 2021.04.16.).

포스코C&C(공식 명칭은 POSCO Coated & Color Steel Co. Ltd.)는 주거, 공장용 지붕 자재인 판금을 생산하는 현지법인이다. 포스코Steel(POSCO Steel Co. Ltd.)과 포스코C&C가 2020년 말 통합하여 일원화한 회사이다. 포스코C&C 역시 미얀마 기업과 합작투자회사로 포스코가 70%, 미얀마 대기업인 타트마도 그룹(Tatmadaw Conglomerates)이 30% 지분을 나눠 갖고 있다. 2020 영업이익은 약 20억 원으로 포스코 그룹 내에서 상대적으로 소규모이다(미얀마 포스코C&C 홈페이지).

3.2 ESG(Environment, Society, Governance) 개념과 동향

ESG는 환경(Environment), 사회(Society), 지배구조(Governance)의 약자이다. ESG 용어가 업

계에서 빠르게 회자되기 시작한 것은 2020년 후반부터다. 언론이나 미디어에서 ESG를 일컫는 횟수가 급증하였고 기업은 경영의 신조류로 인식하고 있다. ESG는 비즈니스와 경영학 분야의 오랜 쟁점인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의 축약어이다. CSR이 비즈니스 용어로 조작화된 개념이다.

기업과 기업가의 사회적 책무에 대한 저술이 1950년대 처음 등장한 이후 개념, 정의, 다루는 범위에 있어 많은 변화가 있었다. 기업과 사회의 관계에 대한 여러 쟁점이 새롭게 등장할 때마다 CSR속에 포함되면서 외연이 급격히 확장되었고 결국 지금은 상당히 이질적인 내용들이 CSR이라는 종합상자 안에 자리를 같이하게 된 양상이다(Oosterhout and Heugens, 2008). 역사적으로 초기 CSR은 주로 사회적 이슈를 의미하는 용어로 사용되었고 환경적 주제는 기업 지속가능성(Corporate Sustainability) 용어를 사용했지만, 양쪽에서 서로 범위를 확장하면서 지금은 동일한 내용을 가리키는 용어로 호환된다(Van Marrewijk, 2003). 기업의 책임을 대상과 종류로 구분하여 법적, 경제적, 윤리적, 재량(박애)적 책임으로 정리한 Carroll의 설명은 초창기에만 많이 사용되었고 지금은 잘 사용되지 않는다. 요즘은 주주를 포함한 이해관계자에 대한 균형 잡힌 포괄적 책임으로 이해하는 것이 큰 흐름이다(이수열, 홍미경, 2016). CSR과 지속가능 발전(Sustainable Development)이라는, 다소 추상적이고 모호한 관념을 비즈니스 의미로 보다 더욱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Elkington은 트리플바텀라인(Triple bottom lines)을 제안했다(Elkington, 1997). 기업 본연의 경제적(재무적) 성과(bottom line)뿐 아니라 사회적, 환경적 성과(Double Bottom Lines)를 포괄적이고 균형 있게 추구하는 것이 CSR이자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비즈니스의 기여라고 했다. CSR 개념에 비즈니스 순익(Bottom Line) 개념을 적용하면서 어느 영역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보다 명확해졌다. CSR에 대

한 정의는 수십 가지가 넘지만, 다양한 정의 가운데 공통으로 추구해야 할 방향으로 경제, 사회, 환경 세 가지를 언급하고 있다. 여기에 기업의 재량적 행동(Discretion)을 강조한다(Dahlsrud, 2008). 환경(E), 사회(S), 지배구조(G), 세 영역이 CSR의 활동 영역으로 분류되는 맥락이다.

ESG는 원래 CSR의 성과를 측정하고 평가하기 위한 도구에서 출발했다. 기업의 재무적 성과는 일반화된 공통의 측정도구가 존재한다. 예를 들어 수익률(ROA 등)이나 증가상승률과 같은 것이다. 하지만 CSR을 얼마나 잘했는지(또는 열심히 했는지), 성과(Corporate Social Performance: CSP라고 부르기도 한다)를 보여줄 수 있는 지표는 부족했다. 종업원 인권, 다양성부터 시장에서 공정경쟁, 지역사회 공헌, 환경배출 감소, 회계투명성 등 CSR이 포함하는 활동의 범주가 너무 포괄적이어서 한두 가지 지표로 CSR 성과를 대변하는 것은 태생적으로 불가능했다. 세부 영역을 나누어 평가한 뒤 종합시험점수로 보여주는 신용등급제 접근법이 고안되어 CSR 성과를 평가하는 방법으로 보편화되었다. 이때부터 평가영역이 환경적 측면(E), 사회적 측면(S), 그리고 지배구조 측면(G) 세 가지로 분류되었기 때문에 이를 줄여서 ESG평가라고 불렀다. ESG는 전통적으로 'CSR 성과 평가' 또는 'CSR 성과'를 의미하는 용어였고 투자 부문, 금융시장에서 사용된 CSR 언어였다.

ESG가 CSR을 대체하며 급격히 많이 사용된 이유는 금융시장의 지속가능 금융(Sustainable Finance) 움직임 때문이다. 지속가능 금융 역시 20여 년 이상 역사를 가지고 있다. ESG 평가등급을 투자 포트폴리오에 반영하겠다는 금융권의 뜻이다. 2010년대 중반부터 ESG를 반영한 투자가 새로운 물살을 타기 시작했다. 자본시장에서 ESG를 반영하는 정책 수가 급증했다. 유엔책임투자원칙(UN Principles of Responsible Investment: UN RPI)에 따르면

OECD를 포함한 주요 국가들이 도입한 ESG가 반영된 자본시장 규제가 2010년 이후 10년간 세 배 증가했다(UN PRI, 2020). 정부가 주도하는 연기금 운용에서 ESG요소를 고려하는 것, 자산운용사의 스튜어드십코드 적용, ESG 정보공시를 강화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유럽과 미국의 그린뉴딜 정책도 ESG 부흥을 이끌었다. 이들 녹색 재정부흥 정책에서 조성되는 수백조원의 기금을 투자할 곳을 찾을 때 ESG 적합분야를 우선 고려하게 된다.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인 블랙록(BlackRock)을 선두로 글로벌 투자기관이 투자 포트폴리오를 선정할 때 기업의 ESG를 핵심 요소로 반영하겠다고 공식 선언(여운정 2020)한 후 실제로 투자기업들에게 ESG 위험성을 검토하라고 서한을 보낸 것도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다. 자본시장이 움직이고 '돈'이 ESG를 원하는 시대가 되었다. CSR성과 평가를 의미하는 금융시장의 용어였던 ESG가 CSR의 대리지표이자 대체 상징물로 등장하게 된 맥락이다.

3.3 포스코 미얀마 사업의 ESG 리스크

포스코의 해외사업은 특별히 이상해 보일 것 없는 전형적인 글로벌 경영 관행처럼 보인다. 하지만 군부 독재, 정치적 불안정성(Instability)과 연결되어 있어 포스코의 미얀마 사업은 태생부터 ESG 리스크를 안고 출발한 것과도 같다. 독재정권, 부패, 원주민 인권, 환경오염 문제 등은 개발도상국 자원개발 대형 프로젝트에서 흔히 목격되는 쟁점으로 전형적인 ESG 리스크로 분류된다.

포스코의 미얀마 사업은 군부 독재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어 독재 권력의 자금줄 역할을 한다는 비난의 위험을 안고 있었다. 군사 정권이 흔히 일으키는 인권 탄압이 벌어지면 그 위험은 더 커지게 된다. 미얀마 군부는 2000년대 이후 권력을 민간에 조금씩 이양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지만 개정된 헌법

을 통해 정치적 기득권을 보장받으며 미얀마 경제를 실질적으로 장악했다고 알려져 왔다. 포스코 C&C의 합작투자 파트너인 타트마도 그룹(Tatmadaw Conglomerates)은 군부가 소유한 기업 집단이다. 타트마도는 미얀마어로 군대(Army)라는 뜻이다.

타트마도 그룹은 미얀마 거의 모든 산업에 계열사를 가지고 있다. 자회사인 미얀마경제공사(MEC: Myanmar Economic Corporation)와 미얀마경제지주회사(MEHL: Myanmar Economic Holdings Limited)를 통해 은행, 관광, 부동산, 물류 운송, 금속, 광물, 농업, 담배 기업을 소유하고 있다. 미얀마 대표 광물인 루비와 같은 보석류는 독점 체제다. 심지어 마약과 폭력조직에도 손을 대고 있다는 의혹도 있다. 군부로 유입되는 자금 규모는 막대할 것으로 예측된다. 특히 군부 수뇌부와 그 가족들이 누리고 있는 지위와 재정적 이익이 쿠데타도 서슴지 않게 하는 가장 큰 동기일 것으로 진단하기도 한다.

군부는 MEC, MEHL과 같은 일반 기업을 통해 겉으로 보이기엔 합법적이면서도 실질적으로 미얀마 경제를 장악하고 있는 셈이다. 위장된 통제에 대한 심증이 확인된 것은 최근의 일이다. MEHL가 제출한 기업 보고서와 버마정의국제연대(Justice for Burma International)가 폭로한 자료이다. 이 자료는 MEHL 지분의 삼분의 일을 군부가 가지고 있고 나머지 주식도 전현직 군부 관료들 소유임을 보여주고 있다. 버마정의국제연대는 1990년부터 20년간 군부 정권 유력자들에게 지급된 배당금이 166억에 이른다고 밝혔다. 군부 독재정권은 수하들의 충성심을 유지하기 위해 MEHL 지분을 이용했다는 것이다. 군부를 배신하거나 뜻을 같이 하지 않아 배당을 박탈한 인사 명단 35명이 공개되기도 하였다(UN Human Rights Council, 2019). 합병 전이던 포스코Steel과 포스코C&C 지분의 30%가 타트마도 그룹(Tatmadaw Conglomerates) 소유였다. 이 그룹의 해외 합작 파트너는 총 14곳인데 포스코

가 이 중 두 곳에 해당한다(표 1). 포스코의 미얀마 사업이 군부 독재정권과 결탁되어 자금줄 역할을 한다는 의혹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배경이다.

더 큰 우려는 슈웨(Shwe) 가스전 사업에 있다. 개발 사업권을 가진 포스코인터는 미얀마국영가스회사(MOGE)가 현지 합작 파트너이다. 이 기업도 군부 소유라는 의심이 있는 곳으로 1962년 쿠데타로 정권을 잡은 장기 독재자 네윈 정권이 설립한 회사이다. MEHL, MEC와는 달리 MOGE가 어떻게 군부와 연결되어 있는지는 확실히 드러난 상황은 아니다. 다만 MOGE의 지배구조가 불투명하여 의심이 계속 커진다. 국가자원지배구조연구소(National Resource Governance Institute)가 공개한 기업 투명성 지수에서 미얀마국영가스회사는 최하위권 등급을 받았다. 특히 이 회사가 사용한 지출 중 1조 원이 넘는 금액이 사용처가 불분명해 더욱 의심을 받고 있다. 이 액수는 미얀마 국가 연간 보건 교육 예산에 맞먹는 규모다. 미얀마 가스 사업에서 발생할 수익이 군부 통치 자금으로 흘러간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배경이다. 포스코인터의 슈웨(Shwe) 가스전 수익의 15%가 MOGE 몫이다.

포스코인터의 호텔사업도 의심을 받았다. 호텔 부지가 미얀마 국방부가 사용하던 장소이며, 납부하는 토지 임차료가 결국 군부로 흘러 들어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 사업 추진 과정에는 한때 현지인 인권 문제도 결부되어 논란이 되었다. 신규호텔을 건축하는 과정에서 부지를 추가 매입할 때 군부세력이 통제하는 마을위원회가 주민들에게 토지를 헐값에 팔도록 강요해 주민들이 고발하는 사건이 있었다.

미얀마 민주화 유희사태는 이전에 있었던 포스코인터의 對미얀마 무기 수출 이력까지 소환하여 비난을 증폭시켰다. 국내 방산 제품 수출은 슈웨 가스전 개발과도 관련이 있다. 미얀마 군부는 슈웨 가스전 개발에 참여한 국가들에서 대량의 무기를 사들였다. 대우인터내셔널 시기에 슈웨 가스 투자가 확정된 직

〈표 1〉 미얀마경제공사(MEC), 미얀마경제지주회사(MEHL) 합작투자 기업 목록

미얀마 기업	MEC/ MEHL	해외 합작투자사	합작투자 국가	업종
Coal Mine & Power Plant (Mai Khot)	MEC	Saraburi Coal Company Ltd.	홍콩	광업
Gold Cement Co. Ltd.	MEHL	Gold Cement Co. Ltd., GC Holdings	세이셸	제조
Hanthawaddy Golf & Country Club Ltd.	MEHL	Inno Co. Ltd.	한국	스포츠 레저
JPMD Ltd.	MEC	Japan Myanmar Development	일본	건설
Mandalay Brewery Ltd.	MEHL	Kirin Holdings	일본	제조
Moe GyoSulphuric Acid	MEHL	NORINCO	중국	제조
Myanmar Brewery Ltd.	MEHL	Kirin Holdings	일본	제조
Myanmar Inno International Ltd.	MEHL	Inno Co. Ltd.	한국	부동산
Myanmar Inno Line Company Ltd.	MEHL	Inno Co. Ltd.	한국	부동산
Myanmar POSCO C&C Company Ltd.	MEHL	POSCO Coated & Color Steel Co. Ltd.	한국	제조
Myanmar POSCO Steel Company Ltd.	MEHL	POSCO Steel Co. Ltd.	한국	제조
Myanmar Wise-Pacific Apparel Yangon Company Ltd.	MEHL	Pan-Pacific Co. Ltd.	한국	제조
Telecom International Myanmar Company Ltd. (aka Mytel)	MEC	Viettel	베트남	정보통신
Virginia Tobacco Company Ltd.	MEHL	Distinction Investment Holdings Pte.	싱가포르	담배

출처: UN Human Rights Council, 2019

후 2002년부터 무기 수출을 시작한 이력이 있다(시사저널, 2021.04.02.). 포스코인터가 2018년 미얀마 정부에 판매한 군함에 대한 의혹 제기도 이어졌다(MBC뉴스, 2021.04.06.). 포스코인터는 2018년 다목적 지원선 한 척을 미얀마 군부에 팔았는데 이것이 미얀마 해군의 상륙수송선으로 전용되었다. 이때는 2017년 벌어진 로힝야족을 상대로 한 대략 학살에 대한 국제사회 비난이 높았을 때였고, 당시 미국은 미얀마군 수뇌부들의 자산을 동결하고 유럽 연합은 미얀마에 무기 수출을 금지했을 때였다. 이에 대해 포스코인터는 당시 민간 상선과 비슷한 배를 팔았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2018년 수출 계약 당시 방위사업청에서 군용물자 수출 허가를 받은

이력이 있어 군수물자 수출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을 것으로 의심을 사고 있다. 추가적으로 2019년 상륙수송함을 판매한 기록도 존재한다. 부산에서 거행된 진수식에 미얀마 해군 수뇌부들이 포스코인터 초청으로 참석한 바 있다(MBC뉴스, 2021.04.06.). 한국 정부는 쿠데타가 발생한 직후 2021년 3월 12일 미얀마에 군용물자 수출을 금지했다. 우리나라는 학살이나 인권침해를 저지르는 나라에 무기 판매를 금지하는 유엔무기거래조약 비준 국가이다.

3.4 포스코 미얀마 사업을 향한 다양한 요구와 영향

미얀마에서 쿠데타가 발생한 후 포스코 미얀마 사

업은 다양한 경로를 통해 전달되는 압박과 마주하게 되었다. 미얀마 파트너 기업에 대한 경제 제재, 글로벌 투자기관의 우려, 활동가들의 연이은 호소가 뒤 영겨 하나의 시험대가 되고 있다.

군부 독재정권에서 인권 탄압과 같은 사회적 쟁점이 떠오를 때 국제사회는 여러 가지 형태로 경제제재를 가해 왔다. 미국은 미얀마에 대한 수입금지조치(1990년 시행, 현재 해제), 원조금지조치(1961년, 1994년, 현재 해제), 자산동결(2003년, 2012년 등, 현재 해제) 조치로 압박을 가해 온 이력이 있다. 아웅산 수치가 이끄는 정당이 정권을 잡은 2016년 이후에는 경제제재를 모두 해제하였지만 2021년 2월 군부 쿠데타가 발발하자 대통령 행정명령(Executive Order)을 발동해 첫 제재를 시행한 뒤, 상황을 주시하며 제재 대상을 확대하고 있다. 미국 재무부는 미얀마 군부가 소유하고 있다는 의혹이 있는 미얀마 경제지주회사(MEHL)과 미얀마경제공사(MEC)를 제재 명단에 올렸다. 두 회사는 이미 2021년 3월 4일자로 미국 상무부의 수출제한 대상으로 지정되었다. 제재 대상 기업은 계속 늘어 미얀마국영보석기업, 미얀마목재기업, 미얀마진주기업으로 늘었다. 유럽연합(EU)도 2021년 3월 22일 민주화 시위에 대한 무력 진압이 있었던 직후 최고사령관 민 아웅 흘라잉을 포함한 11명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하였다. EU 가입국 기업들은 제재 대상과 거래와 자금 지원이 금지된다.

미국과 유럽연합의 경제제재는 군부 인사 개인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정권의 주요 자금원으로 지목되는 MEHL과 MEC가 포함되어 타격이 있을 수 있다. 군부, 군부 소유 기업뿐 아니라 제재 대상자가 50% 이상 지분을 소유한 기업이 제재 대상으로 포함되어 이들 기업과 거래하고 있는 외국 기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2021; 미국자유방송, 2021.04.22.). 향후 미얀마국영가스회사(MOGE), 미얀마외환거래은행

(MFTB)까지 제재 대상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이미 미국의 6명의 상원 의원이 미얀마 정부의 외화 자산동결과 군부가 소요한 MOGE와 미야와디은행, MFTB 등에 제재를 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MFTB는 미얀마 군부를 위한 외환 거래를 하고 있다는 의혹이 있다는 점을 부각했다(연합뉴스, 2021.05.05.).

금융권에서도 압력이 늘고 있다. 6,680억 달러(약 754조 원) 규모의 자금을 운용하는 네덜란드 연기금 운용기관인 '공적연금(APG)'은 포스코와 미얀마 군부의 연결고리가 자신들이 준수하고 있는 책임 있는 투자 책무 원칙을 훼손할 수 있다며 우려를 밝힌 바 있다 (조선비즈, 2021.04.06.). 운용자산 400억 달러(약 45조 원 규모)를 운용하는 스웨덴 공적연기금(AP2)은 포스코 지분 0.22%를 보유하고 있다. AP2는 2018년부터 운용자산의 30% 이상을 ESG 벤치마크를 준용해 운용하고 있다. ESG 등급이 높거나 최소한 ESG 위험이 없는 투자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방식이다. 미얀마 상황이 계속 심각해지자 AP2는 주주관여(shareholder engagement) 방식으로 '포스코와 대화'를 시작하겠다고 선언했다. AP2는 이미 주주 관여를 진행해 기린홀딩스가 MEHL과 동반 관계를 종료하도록 압력을 가한 바 있다(임팩트온, 2021.04.12.).

동종 업계 글로벌 기업들의 움직임도 주시해야 할 상황이다. 미얀마 가스전 사업에 같이 참여하고 있는 프랑스 토탈(Total)과 미국 셰브론(Chevron)은 미얀마 사태에 대해 공식적인 우려 논평을 했다. 그리고 가스전 사업의 현지 파트너 기업인 모타마가스운송(MGCT)에 현금 배당을 일시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MGCT는 토탈이 생산하는 가스를 태국 국경까지 송유관으로 수송하는 업체로 토탈이 31.2%, 셰브론이 28.3%, MOGE가 15%, 태국국영석유회사(PTT)가 25.5% 지분을 가진 합작법인이다. 토탈은 "당사는 미얀마에서 일어나는 폭력과 인권 유린을 비난하

고 유럽연합과 미국 등 국제적 결정을 이행할 것이다”라고 5월 26일 자로 공식 발표했다. 세브론도 “미얀마 인도주의적 위기는 집단적 대응을 필요로 한다. 우리는 상황이 허락되는 대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할 준비가 되어 있다”라며 지지 성명을 발표했다. 두 회사가 사업철수나 MOGE에 직접 지급되는 자금을 중단할 계획은 없다. 핵심 사업인 가스전 운영은 계속하면서도 상대적으로 적은 금액이 관련된 합작사의 현금 배당을 중단하는 조치를 취함으로써 미얀마 군부 자금줄을 차단하려는 국제사회의 압력을 수용한 것으로 해석된다(뉴시스, 2021.05.27.). 미얀마 사태에 공식 입장을 내놓은 현지 움직임은 동료 효과(Peer Effect)가 되어 포스코에 압박으로 전달되고 있는 상황이다.

활동가들은 미얀마 투자 사업에 대해 포스코가 결단을 촉구하고 있다. 이러한 호소는 미디어를 통해 지속적으로 노출되고 있다. 미얀마 민주 진영의 임시정부 격인 연방의회대표위원회(CRPH)는 쿠데타 발발 한 달이 지난 3월 10일 포스코 대표이사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공식 서한을 보내왔다.

“석유와 가스 사업자들로부터 거둬들인 수익금이 군부 독재 폭정의 자금이 되는 것을 심각하게 우려한다. 민주 정부가 회복될 때까지 미얀마 투자 자금 지급을 중단하고 해당 대금을 보호 계좌(Protected Account)에 넣어달라” - 땡땡나잉 CRPH 재정산업부장관(KBS뉴스, 2021.03.26.)

IV. 포스코의 대우인터내셔널 인수 전후의 ESG 잠재 리스크(2000~2010)

4.1 포스코의 대우인터내셔널 인수

포스코인터 전신은 대우인터내셔널이다. 대우인터

내셔널은 1967년 대우실업으로 시작하여 한때 한국을 대표하는 종합상사로 성장한 회사였고 대우그룹의 핵심 계열사였다. 1997년 외환위기 때 대우그룹이 해체되면서 2000년 워크아웃에 들어가 2003년 정상화되었다. 자산관리공사(KAMCO) 채권단 관리를 받아오다 2010년 포스코 그룹이 인수했다. 명칭은 2015년까지 계속 사용되었다. 이후 포스코대우로 사명이 바뀌었다가 2019년부터 포스코인터내셔널이 되었다. 대우시절에는 무역업이 중심이었으나 사업 다각화를 통해 해외 자원개발, 프로젝트 발굴, 물류, 해외 부동산으로 사업을 확장하였다. 해외거점 53개국 108개 지사가 있고 임직원 9,369명이다. 2019년 기준 매출은 24.4조 원, 영업이익은 6,053억 원이다. 매출 구성은 무역 비중이 높고 영업이익은 자원개발 부문의 기여가 높다(포스코인터내셔널, 2020).

2010년 대우인터내셔널이 매각 시장에 나오자 포스코는 적극적으로 인수경쟁에 뛰어들었다. 대우는 포스코 그룹에게 아주 매력적인 인수 대상이었다. 대우 시절부터 무역과 해외사업 개발 부문에서 구축한 네트워크가 강점이었다. 2010년 이미 99개 해외 지사와 15곳의 자원개발 광구를 확보하고 있었다. 포스코 핵심 사업인 철강 수출을 전담할 수 있으면서 글로벌 사업 확장에 있어 적격이었다. 무엇보다 당시 정준양 회장이 이끌던 포스코는 사업 다각화를 중요시했고 자원 탐사를 새로운 먹거리로 키우려는 의지가 높았다.

“포스코가 대우인터내셔널을 인수한 주된 이유 중 하나가 바로 미얀마 가스 사업이다”

- 정준양 당시 회장(한경비즈니스, 2011.10.11.)

대우인터내셔널에게 미얀마 가스전 사업은 가장 성공적인 자원개발 사업으로 의미가 크다. 2000년부터 자원개발을 시작한 대우인터내셔널은 2004년

미얀마 슈웨, 슈웨퓨(Shwe Phyu), 미야(Myia) 세 곳에서 처음으로 가스전을 발견한 후 2006년 가스 전 탐사에 돌입했다. 2008년에 미얀마 정부와 가스 판매계약을 체결한 후 본격 개발하여 2013년에 가스 생산을 시작할 수 있었다. 자원개발 사업은 시간이 오래 걸리고 불확실성이 높은 특징이 있다. 미얀마 슈웨 가스전 사업도 10년의 세월이 지나서야 결실을 맺을 수 있었다. 포스코가 대우인터내셔널을 인수한 이후 사업이 속도를 붙여 2013년부터 수익을 내기 시작했다. 포스코 입장에서는 성공적인 기업 인수 사례이기도 하다.

4.2 대우인터내셔널 인수와 ESG 잠재 리스크

미얀마 가스전 사업은 대우인터내셔널 개인 기업을 떠나 한국의 해외 자원개발 역사에서도 손꼽히는 성공사례이다. 하지만 이러한 자원개발 성공 이면에는 늘 사회적 위험이 도사리고 있었다. 대우인터내셔널이 가스전 사업을 시작할 때부터 지금 포스코인터가 겪고 있는 문제 제기가 끊이지 않았다. 2005년부터 미얀마 자원개발 과정에서 인권 문제가 떠올랐다. 당시 국제민주연대가 국가인권위원회 장소를 빌려 토론회를 개최하면서 미얀마 사업개발 과정에서 심각한 인권침해가 일어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대우인터내셔널이 개발하는 가스전 사업이 미얀마 군부의 자금줄이 되어 군부 독재를 강화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자원 탐사와 개발을 쉽게 하려고 숲을 제거하여 생태계를 훼손하고 있고 어부들을 터전에서 몰아낼 뿐만 아니라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주민을 강제로 사업에 동원하고 있다고 비판하기도 했다(프레시안, 2005.04.13.). 당시 국제민주연대 운영위원이었던 차지훈 변호사는 다음과 같이 경고했다.

“대우인터내셔널은 우노칼(UNOCAL) 사건에서 교훈

을 얻어야 한다. 지금 조금씩 지적되는 사회적 쟁점을 무시하면 미국과 국내에서 민 형사적 책임을 져야 할 가능성이 있다. 심할 경우 국제형사재판소에 기소될 위험도 있다. 무엇보다 기업 평판에 큰 흠이 될 것이다. 대우 인터내셔널은 아직 문제가 본격화되지 않아 대응이 가능하다. 미얀마 가스 개발 사업을 진행하더라도 인권침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또 군부 독재와 관련되지 않도록 독립적인 감시 기구를 수립해 방비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다”

우노칼 소송을 이끌었던 지구의권리인터내셔널(ERI: Earth Rights International) 공동설립자인 카사와(Ka Hsaw Wa)는 “한국인들이 지금 버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몰라 대우인터내셔널의 주가가 올라가고 있지만, 군정에 협력한다면 언젠가는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여러 시민단체와 노동조합 활동가들을 만나는 자리마다 니니르윈(Nyi Nyi Lwin)과 카사와는 버마에서 개발되는 그 어떤 자원도 현지 민중에게 혜택으로 돌아가지 않는다고 호소했다. 버마 군부가 벌어들이는 그 어떤 수입도 버마 민중의 삶에 기여하지 못한다는 주장이다(이상아, 2005; 참여연대, 2005.04.12.).

대우인터내셔널의 미얀마 가스전 사업이 속도를 낼수록 문제 제기는 계속되었다. 2007년에도 국제민주연대를 비롯한 비정부단체(NGO)가 대우빌딩 앞에서 미얀마 사업에서 벌어지는 인권침해에 대해 비판했다(이투뉴스, 2007.03.26.). 2011년에는 ‘국제 공동행동의 날’에 국내외 NGO들이 공동으로 대우 인터내셔널의 슈웨 가스개발 사업에 대한 반대운동을 전개했다.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좋은기업센터 등 국내 시민단체와 버마국제민주연맹당(NLD)한국지부, 국제법률인권단체인 ERI 활동가들이 서울에서 모여 대우인터내셔널과 한국 정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중앙일보, 2011.12.13.; 참여연대, 2011). 비판 내용은 이전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가스 송전 파이프라인, 저장시설, 하역 항만 시설 건설과정에



사진 출처: 참여연대(2011)

〈그림 3〉 대우인터내셔널 미얀마 가스전 개발 반대 시위 장면(2011년)

서 원주민의 토지가 몰수되거나 충분히 보상 없이 수용되었고 강제노동이 자행되었다는 내용이었다. 이에 항의하는 시민들을 폭행하고 고문했다는 폭로도 이어졌다. 가스전 개발 과정에서 제대로 된 환경영향평가도 하지 않아 생태계에도 막대한 해를 입혔다는 의혹도 이어졌다.

미얀마에서 자원개발 사업에 먼저 뛰어든 기업은 다국적 에너지 기업들이었다. 미국의 우노칼(UNOCAL), 프랑스의 토탈은 1990년대부터 가스전 사업을 시작해 가스관 건설을 위해 숲을 제거하거나 도로와 사회간접자본을 닦는데 주민들을 강제 동원한 경우가 많았다. 군부의 힘을 빌려서 가능했다. 국제 인권 단체가 지속적인 문제를 제기했고 결국 미국에서 소송이 진행되었다. 당시 우노칼은 1996년부터 8년간 계속된 소송에서 패소했다. 우노칼은 군부의 인권 유린에 전혀 개입하지 않았다고 강하게 부정하였다. 하지만 소송을 마무리하기 위해 피해 주민에서 거액의 금

액을 배상했다. 금전적인 손실도 컸지만, 무엇보다 기업 이미지가 크게 손상되었다. 우노칼은 2005년 셰브론텍사코(Chevron-Texaco)에 182억 달러에 인수되었다. 셰브론텍사코는 인수 당시 우노칼이 피해 소송을 마무리하여 잠재 위험이 해소되었다고 판단하였다. 무엇보다 당시 떠오르는 아시아 중국의 에너지 시장 공략을 위해 경쟁사였던 우노칼 인수에 적극적이었다(The Guardian, 2005.04.05.).

이후에도 국제민주연대, ERI 등 국내외 시민단체들은 대우인터내셔널과 한국가스공사 미얀마 사업이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에 위반된다면 지속적으로 한국 정부에 이의를 제기했다. OECD 가입국으로서 한국 정부는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에 따라 한국기업들이 인권 예방을 이행하도록 노력한다는 협약을 맺고 있다. 인권침해가 발생한 경우 이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기업과 사업 관계에 있는 기업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실질적이고 잠재적인 권리

침해에 대하여 찾아내고 예방하고 경감시키는 노력을 모두 포함하는 것이다. 2000년 이후, 모든 OECD 가입국은 다국적기업이 OECD 가이드라인을 위반하거나 준수하지 못하는 사건이 있을 경우 국가연락 사무소(National Contact Point: NCP)를 통해 의제제를 할 수 있도록 해 왔다. 2008년 한국 정부(당시 지식경제부) NCP는 미얀마 사업에 대한 의제제가 중대한 사안이 아니라며 기각한 바 있다(지식경제부 한국NCP, 2008).

V. 미얀마 사업 ESG 리스크 대응

5.1 대우인터내셔널 인수 이전: 리스크 대응과 포스코의 인식

미얀마 인권 문제는 대우인터내셔널이 포스코에 인수되기 훨씬 전, 자원개발 가능성이 조금씩 눈에 보이던 2000 중반부터 제기된 쟁점이다. 대우인터내셔널은 국내외 NGO 들의 비판과 언론에 보도되는 부정적 기사에 대해 해명하는 방식으로 대응해 나갔다. 대우인터내셔널, 그리고 투자 파트너인 한국가스공사에 대한 외부의 비판은 왜곡된 주장이라고 항변했다. 모든 과정은 정부가 정한 절차에 따라 진행되었고 지역사회와도 충분한 합의를 토대로 보상이 이루어졌다고 설명했다. 대우인터내셔널의 설명은 크게 다섯 가지 영역에 걸쳐 있다.

첫째, 회사는 사업을 시작한 2000년 7월 27일 이후 개발 프로젝트에 관한 필요한 정보는 절차에 따라 모두 공개했으며 국내 환경연합, 국제민주연대, ERI와도 면담을 해 왔다고 말했다. 현지 사업을 주관하는 미얀마E&P(Exploration & Production) 사무소에 사회생태담당(Socio-Eco Coordinator)을 두었고 현지를 직접 방문하여 지역주민의 의견을

꾸준히 들어 왔다고 설명했다. 이미 가스 개발이 본격화되기도 훨씬 이전인 2006년부터 사회경제프로그램(Socio-Economic Program)에 따라 22개에 달하는 학교, 9개 건강센터와 병원을 지어 운영하면서 사회공헌활동을 활발히 해 왔다.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공헌 활동을 계속 늘려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둘째, 지역민의 강제 이주와 인권유린에 대한 비판은 실체가 없다고 항변했다. 2008년 기준으로 육상 가스관 연결은 시작도 하지 않은 상황인데 지역민 강제 이주를 논하는 것은 실재와 다른 왜곡이라고 말했다. 이미 2007년에 대우인터내셔널의 미얀마E&P 사무소가 행동강령(Code of Conducts)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었을 뿐 아니라 사업 파트너인 중국국영석유공사(China National Petro Co.: CNPC)에게도 위반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요청하겠다고 계획을 밝혔다. 회사는 자사의 행동강령이 UN글로벌 컴팩트(UN Global Compact)와 부합하며 동시에 글로벌 메이저 석유회사의 윤리행동강령에 뒤처지지 않는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넷째, 지역 생태환경 영향에 대한 비판에 대해서 회사는 2006년부터 환경영향평가(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EIA)를 실시했으며 사회영향평가(Social Impact Assessment: SIA)도 곧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지식경제부 한국NCP, 2008; 중앙일보, 2011.12.13.).

포스코는 2010년 대우인터내셔널 기업 인수전에 뛰어들 때 이미 이러한 문제들을 인지하고 있었다. 하지만 큰 문제로 생각하지 않았다. 무엇보다 한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미얀마 가스전 사업이 OECD 다국적 기업 가이드라인을 위배하지 않는다고 결정한 것이 컸다. 그 정도의 문제 제기엔 해외사업 개발에서 종종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판단했다. 독자적인 사업도 아니고 공기업인 한국가스공사도 함께 하는 사업이다. 대우인터내셔널을 인수하려는 주된 이유 중 하나가 미얀마 가스전 사업인데 늘 있었던 시민단체의 주장에 일일이 대응할 필요를 느끼지도 못

했다. 글로벌 사업 확대를 위해 3조 원이 넘는 금액으로 기업을 인수하는 일이었다.

5.2 미얀마 민주화 유희사태 이후: 포스코의 대응

2021년 미얀마 군부의 쿠데타 이후 포스코는 미얀마 사태와 결부되는 것에 곤혹스러워했다. 그러면서 포스코를 과녁으로 한 비판에 대해 부당함을 주장해 왔다. 슈웨 가스전 사업이 군부 독재와 쿠데타, 시민 탄압의 자금줄 역할을 한다는 비난에 대해 포스코인터는 항변한다.

“슈웨 가스전에서 얻은 수익금은 군부가 소유하고 있다고 알려진 MOGE에 지불되는 것이 아니다. 미얀마 정부가 별도 관리하는 미얀마외환거래은행(Myanmar Foreign

Trade Bank: MFTB)으로 들어가 정부 예산으로 쓰인다. 군부 자금이 된다는 주장은 근거도 미약하고 논리적이지 않다. 정부 예산은 여러 부처에서 사용될 것이다. 그 돈이 어디에 어떻게 쓰일지는 포스코가 관여할 바가 못 된다. 이 사업은 십여 년이 넘는 동안 진행해 온 사업이다. 민주 정부 시절에도 아무런 문제 없이 진행되어 왔는데, 정권이 바뀌었다고 비판적으로 보는 것은 부당한 일이다. 포스코인터가 생산하는 가스 중 20%는 미얀마 전력 공급에 활용되고 있다. 미얀마 국민의 삶 개선에 기여하는 면도 평가해 주었으면 한다.” (시사저널, 2021.04.02.; 시사IN, 2021.04.27.; 조선비즈, 2021.05.04.)

이후 미얀마 슈웨 가스전 사업에 대해서 포스코인터는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사업 대금 지급을 중단하거나 변경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포스코C&C가 해명하기를 이미 2017년부터 미얀

〈표 2〉 포스코인터 해외사업 ESG 쟁점에 대한 정보 공개 현황

연도	쟁점에 대한 기업보고서 공개 내용
20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포스코 인권경영: 국제노동기구의 아동노동 및 강제 노동 금지 규정 준수 강조 포스코 패밀리 지속가능경영 역량 진단: 포스코 그룹 공급사 행동 규범에 아동노동, 차별, 인도적인 대우 포함 미얀마 쟁점: 미얀마, 베트남, 중국 지역 26개 법인을 윤리사무국에서 직접 방문하여 윤리수준 진단, 교육, 실철 코칭 활동 실시
20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포스코 인권경영, 공급사 행동 규범에 인권 내용 2011과 동일
2013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대성 평가 매트릭스: 해외 진출 시 현지인 인권침해, 아동 및 강제노동 쟁점이 전체 36건 중 20위로 중요성 평가 대우인터내셔널 우즈벡 면화 사업 인권 문제 Q&A 형태로 보고서에 설명, 국제 노동기준을 지지 재확인
2014	<ul style="list-style-type: none"> 우즈벡 노동 인권 문제 설명: 포스코, 대우인터내셔널 실사팀 파견, 노동 개선 확인, 우즈벡 정부의 노동 개선 프로그램 협력 내용 소개 해외사업장 인권경영 사례로 대우인터내셔널 우즈벡 면화 산업 내용 공개
20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포스코대우 우즈벡 면화 사업 인권 실태 개선 내용 소개: 핫라인 설치 강제노동 상담, 신고 접수 우즈벡 면화 사업 쟁점 내용과 대응 이력 공개
2016	<ul style="list-style-type: none"> 우즈벡, 미얀마 사업관련 쟁점 사항 내용 없음
2017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흥국 10개국 리스크에 대한 개괄적 소개
2018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흥국 10개국 리스크에 대한 개괄적 소개
2019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흥국 10개국 리스크에 대한 개괄적 소개
20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흥국 10개국 리스크에 대한 개괄적 소개

(출처: 포스코 홈페이지, 2021)

마경제지주회사(MEHL)에 배당을 중지해서 문제가 될 것이 없다고 했다. 당시 미얀마 군부의 로힝야족 인권 탄압 문제가 불거진 다음 바로 조치를 취했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두 기업과 관계를 완전히 청산해야 한다는 압박이 계속되자 4월 16일 포스코C&C는 마침내 MEHL가 지닌 합작투자 지분 30%를 매입하는 방식으로 관계를 종료할 것이라고 밝혔다. 제휴 중단 결정은 국제사회의 경제제재 상황을 고려하고 군부와 관련된 사업 파트너와 관계를 중단하라는 요구를 수용하기로 한 결과라고 포스코C&C 대변인은 설명했다(조선비즈, 2021.04.16.일자).

포스코가 매년 발간하는 기업보고서를 통해 다양한 영역에서 ESG 정보를 공개해 왔다. 하지만 해외 자원개발 과정에서 쟁점이 되어 왔던 내용은 거의 언급되지 않았다. 또 다른 이슈였던 우즈베키스탄 면화사업 아동노동 문제를 조치한 내용이 일부 공개된 정도이다. 미얀마 가스전 사업이 가진 잠재 리스크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다는 반증이 될 수 있다(표 2).

Ⅶ. 포스코 미얀마 사업은 어떻게? ESG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미얀마 사태가 쏘아 올린 파장은 포스코의 글로벌 경영, 해외사업 확대에 있어 ESG라는 새로운 화두를 던지고 있다. 정치와 복잡하게 얽힌 ESG 리스크에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 ESG 경영이 추구하는 기준은 어디까지인가? 사업에 옳고 그름을 따질 것인가? 또 기업의 윤리적, 사회적 책임 한계는 어디일까? 몇 가지 주장들이 경합할 수 있다.

주장 1. 피를 묻힌 손을 잡으면 피가 묻을 수밖에 없다. 사업 철수가 필요하다

미얀마 군부에 의해 희생자가 계속 늘고 있다. 이것은 부정의(不正義)한 일이다. 국제법 위반이기도 하다. 심각한 인권 유린이 자행되는 것은 보편적 가치와 윤리에 반하는 일이며 세계 시민들이 목소리를 내고 행동해야 한다. 국제사회가 미얀마 사태에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하며 여기에 기업들도 예외가 아니다. 군부로 돈이 들어가는 해외 기업의 합작 사업은 결국 유혈사태의 동조 세력이 된다. 지금 시대 기업은 정부보다 힘이 세고 영향력이 크다. 세상 문제 해결에 동참해야 할 의무가 있다. 사업이 군부 자금줄이 될 줄 몰랐다 할 수 있다. 하지만 의도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정의롭지 못한 일로 드러나면 시정해야 한다. 미얀마 군부로 경제적 재원이 유입되지 않도록 투자와 거래를 중단하는 역할을 해 주어야 한다. 포스코가 지향하는 기업시민, ESG 경영이라면 영위하는 사업 활동이 최소한 사회의 나쁜 일이 계속되거나 커지는데 일조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³⁾

분쟁광물(Conflict Minerals) 사례도 그러하다. 백금, 다이아몬드, 희토류와 같은 광물이 내전(內戰)이 빈번한 분쟁지역의 인종청소, 학살, 인권유린에 연루되지 말아야 한다는 데에는 이미 기업들이 뜻을 같이했다. 분쟁광물 사용을 줄이는 노력과 같은 맥락이다⁴⁾(이지용, 2018). 인종차별 정책인 아파르트헤이트(Apartheid)에 반대하여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투자금을 회수하고 사업을 철수해서 남아공의 흑백분리 정책을 폐기하도록 압박한 사례가 본보기가 될 수 있다(Sparkes, 2002).

포스코는 ESG 경영을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2010년 대우인터내셔널을 인수할 때도 인수 대상 기업이 가진 ESG 위험을 고려하지 않았고, 인수 이후에도

3) 다음 기사에서 나온 논거들을 차용하여 주장을 정리하였다. 매일경제신문(2021.05.10.), ESG 경제 (2021.04.01.).

4) 주요 분쟁지역은 콩고민주공화국과 인근 중앙아프리카 지역이다. 4대 분쟁광물은 주석, 탄탈륨, 텅스텐, 금이다. 분쟁광물에 대한 규제는 미국에서 2012년 시행되었고, 유럽연합은 2021년 시작될 예정이다.

우즈벡 목화 사업 강제노동 쟁점, 인도네시아 팜유 농장 쟁점이 계속 이어졌다. ESG에 대한 진정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 이번 기회에 기업시민의 지향점을 분명히 밝히고 행동으로 보여줘야 한다.

주장 2. ESG 리스크 대응도 전략이 필요하다. 비용과 효과를 분석한다

ESG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의 실천적 해석일 뿐이다. ESG의 모태인 지속가능성은 사회적, 환경적 가치를 지향하지만 경제적 가치를 기반으로 한다. 환경, 사회, 경제를 균형 있게 고려하는 삼중성과(Triple-Bottom Line: TBL)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 포스코가 지금 보여주는 ESG는 분명 모순되는 부분이 있다. 외부 평가도 같린다. 그러나 미얀마 사태에 대한 비난 속에서도 ESG 평가기관에 최우량 등급을 받았다. 그러므로 ESG 쟁점을 투명하게 드러내어 사안별로 대응해야 한다.

가장 주요한 대응 전략으로 꼽을 수 있는 것은 미얀마 사업에서 군부정권 독재자가 명백히 주인이 회사, 그러면서 영향이 적은 사업은 철수하는 방안이다. 포스코C&C는 연 매출 20억 원 정도로 규모가 작은데 합작회사인 MEHL와 군부와의 관련성은 너무 명확하다. 포스코C&C 모기업인 포스코강판은 국내 상장사로 ESG에 대한 기대 수준이 높기 때문이다. 포스코인터의 미얀마 가스전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합작 지분을 가진 MOGE가 미국의 경제제재에 포함되었다고 해도 사업 자체에는 크게 영향이 없다. 사업을 계속하면서 국제 공조를 통해 대응한다.

포스코인터가 운영해 온 인도네시아 팜유 농장 사업이 좋은 경험이 될 수 있다.⁵⁾ 포스코인터가 2011년 인도네시아 팜유 농장을 인수한 이 사업은 열대

우림 파괴, 거주민 강제이주, 인권 등 여러 문제가 제기된 바 있다. 세계 최대 국부펀드인 노르웨이 연기금이 이 사업을 비윤리적 투자로 규정하고 포스코를 투자 군에서 제외하였고 2018년에는 네덜란드 공적연금이 포스코인터 투자를 철회했다. 포스코와 포스코인터는 이러한 쟁점에 대응하기 위해 준비를 거쳐 2020년 팜유농장을 친환경 사업으로 바꾸기 시작했다. 팜사업환경사회(NDPE: No Deforestation, No Peat, No Exploitation)로 부르는 친환경 정책을 선언했다. NDPE는 주기적으로 제기되는 팜유 사업에 대응하기 위해 2013년 세계 최대 팜유 유통 회사인 월마가 시작한 것이다. NDPE에 따라 개간한 농장 면적만큼 산림을 복구한다. 사업 운영에서 인권 문제 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국제기준에 따라 운영하고 독립적인 감수기관에 참여하여 투명성을 높일 계획이다(조선비즈, 2020.03.01.; 이투뉴스, 2020.03.02).

주장 3. 논란은 과대 포장된 것, 무시할 만하다. 기다리면 잊힌다

미디어에서 떠들썩한 상황과는 달리 사업에 큰 영향이 없다. ESG 리스크는 과대 포장되어 왔다. 포스코의 또 다른 해외사업이었던 우즈벡 면화 사업에서 벌어진 강제노동 인권 문제가 한창일 때도 우인터내셔널 재무성과는 나쁘지 않았다.⁶⁾ 2010년부터 2015년까지 등락이 없진 않았지만, 우즈벡 ESG 리스크가 영향을 미쳤다는 근거는 없다. 오히려 2012년 주가가 급등했는데 지금 문제가 되는 미얀마 가스전 생산에서 수익이 늘 것으로 기대되었기 때문이다(연합인포맥스, 2012.03.20.). 2014년 주가 급락은 미얀마 가스전의 기대치를 재조정했기 때문인데 시장의 기대는 ESG가 아니라 실적을 바라는 가

5) 인도네시아는 세계 최대 팜유(palm oil) 생산 국가이다. 대규모 팜유 농장과 공장 건설과정에서 열대우림 파괴, 원주민 강제 이주 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된다. 포스코인터, 한국계 인도 기업인 코린도 등이 연루된 사회문제가 있어 왔다.

6) 우즈벡 목화 사업 아동노동 문제 사례는 수업 토론에서 추가적으로 다룬다.

스전 사업에 몰려 있다는 반증이다(한국경제신문, 2014.12.19.). 2021년 미얀마 유혈사태 이후에도 포스코인터 주가에 나쁜 징조는 없었다. 오히려 2월 이후 주가가 급등하였을 뿐 아니라 2021년 1분기에 사상 최대 분기 매출과 영업이익을 거두기도 했다. 해외사업 여러 곳에서 문제가 제기되었던 우즈벡 면화 사업, 인도네시아 팜오일 사업도 실적이 상승했다. 회사는 “최근 미얀마 사태로 인한 회사 실적에 대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사상 최대 분기 매출을 기록했다. 미얀마 영향은 매우 제한적일 것이다”라며 자신감을 드러낸 바 있다(코리아 IT 타임스, 2021.04.23.). 과대 포장된 비판과 비난은 서서히 잊힐 것이다.

주장 4. 정치는 정치, 사업은 사업이다

독재정권 국가에서 사업을 하는 것이 과연 잘못된 것일까? 세상에는 독재정권 국가가 여럿 존재하고 인권 문제도 여전히 심각하다. 중국도 일당 독재이고 이란 정부나 두테르테가 집권하고 있는 필리핀에도 인권 탄압이 종종 발생한다. 하지만 이러한 나라와 거래하거나 현지 투자하는 것이 비윤리적, 부도덕한 일이라고 할 수 없다. 독재자에게 직접 돈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면 독재정권, 인권 탄압이 자행되는 국가에서 사업을 하는 것 자체를 비난할 수는 없다. 1984년부터 시작되어 지금도 진행 중인 기적의 토목공사로 불리는 리비아 대수로 공사의 영웅은 한국의 건설 회사였고 지금도 칭송의 대상이다. 이 사업은 리비아의 독재자였던 카다피의 기획이다(아틀라스, 2019.04.12.).

정치는 정치, 사업은 사업이다. 둘을 분리해서 바라봐야 한다.⁷⁾ 포스코인터는 미얀마 가스전 지분의 51%를 가졌다. 군부의 돈줄 의혹을 사고 있지만 어쨌든 지분 15%를 소유한 미얀마국영가스공사(MOGE)는 미얀마 정부 기업이다. 미국과 유럽에

서 MOGE를 경제제재 대상에 포함시키더라도 가스 생산과 판매에는 직접 관련이 없다. 제3세계에 아직도 즐비한 부도덕한 정권이나 군사 정권에 연관된 기업과 합작하는 것은 피하기 어려운 현실이다. 미얀마 가스전 사업은 국내 기업의 대표적인 해외자원 개발 성공사례로 2015년 이후 매년 2,000~3,000천억 원에 달하는 수익을 보장하는 사업이다. 무엇보다 이 사업을 접고 철수하면 우리나라에 미치는 파장도 크다. 막대한 자본과 오랜 노력의 결실이 고스란히 중국이나 인도 기업 차지가 될 것이다. 포스코인터는 가스전 3단계 사업을 기반으로 아시아개발은행(ADB) 등에서 공적개발원조(ODA) 자금을 지원받아 미얀마 발전 사업에도 진출한다는 계획을 검토 중이다(한국경제신문, 2021.02.01.). 사업을 철수하거나 지분을 보유한 파트너기업인 MOGE에 수익금 배당을 중단하는 것은 사업 계약 위반이 되어 미얀마에서 다시 사업을 시작하는 것이 아예 불가능한 일이 될 수도 있다. 이상을 좇는 것은 비즈니스의 논리가 아니다.

REFERENCES

- Dahlsrud, A. (2008), “How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is defined: an analysis of 37 Definitions,”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and Environmental Management*, 15, 1-13.
- Elkington, J. (1997), *Cannibals with forks: The triple bottom line of 21st century business*, Capstone, Oxford.
- Oosterhout, J. van. and Heugens, P.P.M.A.R. (2008), “Much ado about nothing: A conceptual critique of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Crane,

7) 다음 기사의 주장을 일부 차용했다. KBS뉴스(2021.03.11.), 이데일리(2021.05.26.)

A., McWilliams, A., Matten, D., Moon, J. and Siegel, D. (Eds.), *The Oxford Handbook of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Oxford University Press, Oxford, UK. 197-223.

Sparkes, R. (2002), *Socially responsible investment: A global revolution*, Wiley.

The Guardian 2005.04.05.일자, "ChevronTexaco buys rival for \$18bn" (<https://www.theguardian.com/business/2005/apr/05/oilandpetrol.news1>) (접속일자: 2021.07.22.).

UN Human Rights Council (2019), *Economic interests of the Myanmar military*. (https://www.ohchr.org/Documents/HRBodies/HRCouncil/FFM-Myanmar/EconomicInterestsMyanmarMilitary/A_HRC_42_CRP_3.pdf) (접속일자: 2021.05.17.).

UN Principles of Responsible Investment (2020), *Responsible investment regulation map*. (<https://www.unpri.org/policy/responsible-investment-regulation-map/208.article>) (접속일자: 2021.02.21.).

Van Marrewijk, M. 2003. "Concepts and definitions of CSR and corporate sustainability: Between agency and communion," *Journal of Business Ethics*, 44, 95-105.

국내참고문헌

ESG 경제 2021.04.01.일자, "포스코의 미얀마 리스크, 결론에 얽매어진 안돼...ESG에서 해법을" (<http://www.esgeconomy.com/news/articleView.html?idxno=266>) (접속일자: 2021.05.26.).

KBS 뉴스 2021.03.11.일자, "특파원 리포트, 포스코가 미얀마에 무슨 투자를 했길래?"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136236>) (접속일자: 2021.05.26.).

KBS 뉴스 2021.03.26.일자, "미얀마 임시정부, 포스코 사

업중단 공식 요청" (<https://www.youtube.com/watch?v=7T3zjkwq-No>) (접속일자: 2021.05.17.).

MBA 뉴스 2021.04.06.일자, "미얀마 군부와 관계없더니...군함도 구매대행" (https://imnews.imbc.com/replay/2021/nwdesk/article/6141426_34936.html) (접속일자: 2021.05.17.).

MBC 뉴스 2021.04.06.일자, "군함 수출 아니라더니...무기 수출 허가까지 받아" (https://imnews.imbc.com/replay/2021/nwdesk/article/6141427_34936.html) (접속일자: 2021.05.17.).

뉴스스 2021.05.27.일자, "토탈, 세브론, 미얀마 합작사 배당 중단...핵심 사업은 지속" (https://newsis.com/view/?id=NISX20210527_0001455463) (접속일자: 2021.09.24.).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2021), *미얀마 비상사태 이후 경제 동향 (3.25)*. (<https://news.kotra.or.kr/user/globalBbs/kotranews/3/globalBbsDataView.do?setIdx=242&dataIdx=187751>) (접속일자: 2021.05.17.).

매일경제신문 2021.05.10.일자, "반기문, 미얀마 사태, 인류 평화 위협...세계인들 목소리 내야" (<https://www.mk.co.kr/news/society/view/2021/05/450076/>) (접속일자: 2021.05.26.).

미국자유방송 (Voice of America Korea) 2021.04.22.일자, "미국, 미얀마 국영기업 2곳 추가 제재" (<https://www.voakorea.com/world/asia/us-myanmar-sanctions-5>) (접속일자: 2021.05.17.).

세계은행 (<https://data.worldbank.org/indicator/NY.GDP.MKTP.CD?locations=MM>). 접속일 (2021.05.15.).

시사IN 2021.04.27.일자, "미얀마와 포스코, 기업의 사회적 책임"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4435>) (접속일자: 2021.05.17.).

시사저널 2021.04.02.일자, "국제 인권단체, 미얀마 군부, 포스코인터 통해 한국산 무기 샀다" (<https://news.v.daum.net/v/20210402143202103?f=p>) (접속일자: 2021.05.17.).

아틀라스 2019.04.12.일자, "동아건설 준공 리비아 대수로

- 공사” (<http://www.atla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7>) (접속일자: 2021.05.26.).
- 여은정 (2020), “국내의 연기금의 사회적 책임투자와 정책적 시사점: 사례 분석을 중심으로,” **Korea Business Review**, 24(2), 29-72.
- 연합뉴스 2021.02.16일자 “미얀마 군부 공포정치 시동…시위대 향해 발포” (<https://m.yna.co.kr/view/MYH20210216016300038>) (접속일자: 2021.05.15.).
- 연합뉴스 2021.04.08.일자 “미얀만 군경 발포로 누적 사망자 600명 넘어…어린이만 48명” (<https://www.yna.co.kr/view/AKR20210408060100084>) (접속일자: 2021.05.15.).
- 연합뉴스 2021.05.05.일자, “유엔 주재 미얀마 대사, 국영 석유회사 은행 제재해야” (<https://www.yna.co.kr/view/AKR20210505045900084>) (접속일자: 2021.05.17.).
- 연합인포맥스 2012.03.20.일자, “대우인터내셔널, 추가 상승 세 가지 이유 ‘미래에셋’” (<https://news.einfomax.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904>) (접속일자: 2021.05.25.).
- 윤동진 (1999), “미얀마 대우그룹의 성장과정,” **Korea Business Review**, 3(2), 143-162.
- 위키백과 2021.05.15. 미얀마. (<https://ko.wikipedia.org/wiki/미얀마>) (접속일자: 2021.05.15.).
- 이데일리 2021.05.26.일자, “포스코 ‘미얀마 가스전’이 소중한 이유”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256246629016776&mediaCodeNo=257>) (접속일자: 2021.05.26.).
- 이상아 (2005), “한국기업의 버마 가스 개발, 무엇이 문제인가?” 인권하루소식 2799호. (<https://www.sarangbang.or.kr/hrdailynews/68360>) (접속일자: 2021.05.21.).
- 이수열, 홍미경 (2016), “기업의 사회적 책임, 무책임, 그리고 기업성과: 이론과 측정도구의 타당성에 대한 실증분석,” **경영학연구**, 44(3), 677-711.
- 이지용 (2018), 분쟁광물 규제와 기업의 대응방안, 코네틱 리포트, 국가환경산업기술정보시스템. (https://www.konetic.or.kr/include/EUN_download.asp?str=WEBZINE.dbo.TBL_REPORT&str2=2131) (접속일자: 2021.05.26.).
- 이투뉴스 2007.03.26.일자, “미얀마 가스개발 인권침해 유발” (<http://www.e2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2060>) (접속일자: 2021.05.21.).
- 이투뉴스 2020.03.02.일자, “포스코인터, 인니 팜요일 사업 상생강화로 책임경영” (<https://www.e2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20257>) (접속일자: 2021.05.26.).
- 이투데이 2021.02.26일자 “미얀마 쿠데타 장기화…포스코 인터 등 현지 진출기업, 긴장 속 예의주시” (<https://www.etoday.co.kr/news/view/1998929>) (접속일자: 2021.05.16.).
- 임팩트온 2021.04.12.일자, “스웨덴 공적연금 AP2, 미얀마 사태 포스코와 ‘주주대화’ 시작” (<http://www.impacton.net/news/articleView.html?idxno=1585>) (접속일자: 2021.05.26.).
- 사회책임투자의 원칙과 적용 (2006). [https://www.kcmi.re.kr common downloadw](https://www.kcmi.re.kr/common/downloadw).
- 조선비즈 2020.03.01일자, “포스코, 인니 팜유 농장 환경 파괴 논란 5년 만에 ‘친환경하겠다’”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3/01/2020030100463.html) (접속일자: 2021.05.26.).
- 조선비즈 2021.04.06.일자, “포스코강관, 미얀마 군부와 관련된 사업, 정리 방안 검토중”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21/04/06/2021040602347.html) (접속일자: 2021.05.18.).
- 조선비즈 2021.04.16.일자, “포스코강관, 미얀마 군부 관련사와 합작관계 종료”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21/04/16/202104160681.html) (접속일자: 2021.05.24.).
- 조선비즈 2021.05.04.일자, “포스코, 미얀마 군부와 관계 끊어야” 1만명 서명” (<https://biz.chosun.com/industry/company/2021/05/04/HS4MZWJBVFHUHJFV3AHVQYB6KU/>) (접속일자: 2021.05.24.).
- 중앙일보 2011.12.13.일자, “말 많고 탈 많은 대우인터 ‘버

- 마 가스개발 사업” (<https://news.joins.com/article/6881064>) (접속일자: 2021.05.21.).
- 지식경제부 한국NCP, (2008),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 위반 이의제기에 대한 회신. (<https://earthrights.org/wp-content/uploads/publications/OECD-Complaint-Rejection-Korean.pdf>) (접속일자: 2021.05.23.).
- 참여연대 (2011), “한국기업의 무분별한 버마가스개발에 반대한다. 슈웨가스 반대 국제공동행동의 날을 맞이하여.” (<http://www.peoplepower21.org/International/851949>) (접속일자: 2021.05.21.).
- 참여연대 2005.04.12.일자, “버마 가스개발,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 자료집. (<https://www.peoplepower21.org/International/591681>) (접속일자: 2021.07.22.).
- 코리아IT타임즈 2021.04.23.일자, “미얀마 사태 불식, 포스코인터내셔널 1분기 사상 최대 분기 매출 달성” (<http://www.koreaitimes.com/news/articleView.html?idxno=105339>) (접속일자: 2021.05.25.).
- 포스코 홈페이지 (2021). (<https://www.posco.co.kr/homepage/docs/kor6/jsp/esg/initiative/s91b60000311.jsp>) (접속일자: 2021.07.23.). 연도별 기업보고서 (<https://www.posco.co.kr/homepage/docs/kor6/jsp/irinfo/irdata/s91b60000301.jsp>) (접속일자: 2021.06.17.).
- 포스코C&C 홈페이지 (<https://www.myanmarposcocnc.com/>) (접속일자: 2021.05.16.)
- 포스코인터내셔널 (2020), POSCO International IR Report (ESG Edition). (www.poscointl.com) (접속일자: 2021.05.18.).
- 포항MBC 2021.03.18.일자 “포스코-미얀마 군부 자금출실체 속속 드러나” (https://www.youtube.com/watch?app=desktop&v=_Fdxp_bw0H4&feature=youtu.be) (접속일자: 2021.05.15.).
- 포항MBC 2021.04.13.일자 “포스코-미얀마 군부 의록, 썩다 정리해봄.zip” (<https://www.youtube.com/watch?app=desktop&v=ADHmtd-oVBk&feature=youtu.be>) (접속일자: 2021.05.15.).
- 프레스리안 2005.04.13.일자, “대우의 미얀마 가스개발, 군부 만행속 진행돼”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9986>) (접속일자: 2021.05.20.).
- 한경비즈니스 2011.10.11.일자, “포스코 인수 이후 1년, 대우인터내셔널에 무슨 일이…” (<https://magazine.hankyung.com/business/article/202102253673b>) (접속일자: 2021.05.23.).
- 한국경제신문 2014.12.19.일자, “대우인터내셔널, 과도한 추가하락 발생” (<https://www.hankyung.com/finance/article/2014121983806>) (접속일자: 2021.05.25.).
- 한국경제신문 2021.02.01.일자, “한국기업들 비상…포스코인터 가스전에 영향 미치나 촉각”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1020161371>) (접속일자: 2021.05.17.).
- 한국경제신문 2021.02.02일자 “한국기업들 비상…포스코인터 가스전에 영향 미치나 촉각”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1020161371>) (접속일자: 2021.05.16.).
- 한국경제신문 2021.04.16.일자 “미얀마, 알짜 가스전 어쩌나…군부와 결별, 포스코의 딜레마”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104169865i>) (접속일자: 2021.05.15.).

Myanmar's Democracy Crisis and Posco: ESG issues in Posco's International Business

Minjung Kong* · Su-Yol Lee**

Abstract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CSR) has recently regained attention in the name of ESG (environment, society, and governance). ESG issues embedded in the entire management area might emerge as challenges to businesses in an unexpected context. A military coup engendered Myanmar's crisis in 2021, which causing concerns from the world. Posco and its affiliated company, Posco International, have been caught in claims. They have been blamed that their natural gas business in Myanmar is backing the military dictatorship, and thus might be a part of the causes of the Myanmar democracy crisis. This case is designed to provide a class discussion on ESG issues of Posco's global business. First, this case explains ESG issues that global companies might encounter when expanding businesses in emerging economies, particularly in unstable political situations. Second, it provides the groundwork of various perspectives to analyze and develop measures to address such ESG issues in the global business context. This case does not directly depict Posco's ESG management. It does not intend to illustrate either effective or ineffective handling of a managerial situation and judgment of the right thing of businesses. However, this can apply to case discussions regarding business ethics according to the teaching plan.

Key Words: Posco Co., Posco International Co., Myanmar crisis, Myanmar natural gas project, ESG issues

* Doctoral student, Department of Business Administration, Chonnam National University, First Author

** Professor, Department of Business Administration, Chonnam National University, Corresponding Author

〈Teaching Note〉

미얀마 민주화 위기와 포스코 해외사업: 글로벌 경영과 ESG 리스크

Synopsis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쟁점은 최근에 이의 비즈니스적 해석을 강조하는 ESG(Environment, Society, Governance)란 이름으로 다시 주목받고 있다. CSR도 그러했지만, ESG는 기업의 본질적인 경영활동과 기업 선행을 분리하지 않는 것이 핵심이다. ESG는 기업 경영의 모든 활동에 내재되어 다양한 형태로, 그리고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서 새로운 도전으로 다가온다. 이 사례는 기업의 전략적 현안인 해외사업 개발과 확장, 기업 인수합병을 통한 글로벌 기업 다각화 과정에서 맞닥뜨릴 수 있는 ESG 쟁점을 이해하고 이를 다양한 시각으로 해석하여 전략적 대응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되었다. 특히 정치적 불확실성이 높은 지역으로 사업을 확장하는 글로벌 비즈니스 경영에서 제기될 수 있는 정치와 경영의 복잡 미묘한 연결점에 대해 토론의 장을 제공한다. 글로벌 비즈니스의 ESG 위험, 대응 방안, 더 나아가 비즈니스 관점에서 옳은 것은 무엇인가 하는 기업 윤리 쟁점까지 폭넓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경영교육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Teaching Point

CSR, ESG, 기업윤리 쟁점은 오랜 논의의 과정을 통해 경영학계와 산업계에 충분히 알려져 왔다. 하

지만 글로벌 비즈니스 경영 환경에서는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서 새로운 쟁점이 급부상할 때가 많다. 불확실성이 높은 정치 상황과 맞물렸을 때의 해외사업은 해당 국가의 지엽적 문제를 넘어 기업의 글로벌 평판과 글로벌 쟁점으로 확대될 수 있다. 이 사례는 포스코와 포스코그룹 계열사의 ESG 경영을 직접 다루는 것이 아니다. 대신 포스코가 오랫동안 공들여 추진해 온 해외사업이 해당 지역의 잠재된 정치적 불안 요인 때문에 태생적인 사회적 쟁점을 내포하고 있을 때 생길 수 있는 ESG 쟁점 상황을 이해하고 여러 시각으로 해석하여 토론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다. 미얀마의 군부 독재 사례는 미얀마만의 독특한 사정이 아니다. 지금도 세계의 여러 다른 지역, 특히 민주화 발전이 더딘 3세계에서는 군부 독재 상황이 종종 목격된다. 이러한 지역에서 비즈니스를 개척하거나 확장해야 할 때 태생적으로 사회적, 환경적 위험을 내포하게 된다. 포스코인터내셔널의 전신인 대우 인터내셔널 시절부터 누적되어온 ESG 위험이 최근 미얀마 군부 쿠데타와 민주화 위기로 다시 수면위로 떠올랐다. 이 사례는 해외사업 확장, 그리고 이러한 글로벌 경영에 필요한 인수합병과 관련된 잠재된 ESG 위험에 대해 간접경험을 제공한다.

이 사례토론에 정답은 없다. 옳고 그름을 당위적이고 선언적으로 판정(Judge)하지 않도록 지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글로벌 경영에서 직면할 수 있는 예기치 못한 ESG 위험을 인식하고 해석하고 대응하는 과정에 대해 학생들이 다양한 방면에서 생각하고 토론할 수 있도록 이끌도록 한다.

이 사례는 2021년 미얀마 군부 쿠데타와 민주화 시위 탄압 이야기로 시작한다. 비즈니스, 경영과 관련 없어 보이는 정치 쟁점에 포스코 이름이 갑자기 회자되면서 궁극증을 유발할 수 있도록 하였다. 제3 세계, 신흥시장에서 정치적 불안 상황이 과연 어떻게 글로벌 비즈니스에, 어떤 ESG 위협을 초래할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있다. 대우인터내셔널을 인수한 포스코의 상황, 인수합병 전후 상황을 통해 포스코의 글로벌 경영전략, 잠재 ESG 위협 등의 맥락을 파악하도록 한다. 대우인터내셔널/포스코인터내셔널은 글로벌 비즈니스 면에서 포스코그룹에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배경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ESG 쟁점을 토론했고 이를 토대로 여러 대응 방안을 제안할 수 있도록 논의를 이끈다.

Assignment Questions and Analysis

지도 조언

- (1) 사례를 꼼꼼히 읽도록 지도한다.
- (2) 주어진 사례에만 집중하도록 지도한다. 외부 자료나 최신 자료를 검색하여 추가적인 정보를 얻지 말고 이 사례에 서술된 내용만 가지고 해석하고 토론하도록 한다. 단, 토론에 필요한 논거를 만들기 위한 추가 자료 수집은 가능하나 자료 수집 범위나 내용을 강사가 학생들에게 명확히 알려준다.
- (3) 잘잘못, 옳고 그름을 가지고 논쟁하지 않도록 토론을 이끌어가는 것이 중요하다.
- (4) CSR, ESG, 기업윤리에 대해서는 기존 자료가 방대하고 논점이 달라 몰이해할 수 있다. 소모적인 논쟁이 되지 않도록 강사가 핵심을 요약해 줄 필요가 있다. 지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간략한 설명을 아래 첨부하였다.
- (5) 사례의 마지막 장(6장)은 토론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가능한 네 가지 주장을 정리한 것이다. 이 네 가지 의견에 제약받지 않고 더 다양한 의견을 낼 수 있도록 논의를 이끈다. 다만 옳고 그름, 선악, 당위성이 너무 분명한 주장, 논쟁이 되지 않도록 토론을 중재해야 한다.

시작하기 전: Small Lecture

CSR, ESG, 기업윤리의 바른 이해를 돕기 위해 다음 내용을 소강의 형태로 설명한다. 미얀마 군부 독재 상황에서 비즈니스 운영이 어떻게 ESG 쟁점 중 하나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이야기 해준다. 이 내용은 사례 본문 3.2절에 제시되어 있다. 개념에 대한 바른 이해와 흐름을 중심으로 설명하되 강의에 너무 많은 시간을 들이지 않는 것이 좋다.

ESG 용어가 업계에서 빠르게 회자되기 시작한 것은 2020년 후반부터다. 언론이나 미디어에서 마치 신조어인 듯 ESG를 일컫는 횡수가 급증하였고 기업은 경영 신조류를 대면하듯 놀라는 모양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ESG는 비즈니스와 경영학 분야의 오랜 쟁점인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의 축약어와 다름없다. CSR이 비즈니스 용어로 조작화된 것(Operationalized)으로 해석하는 것이 바른 이해이다. 학술적 의미와 최근 동향을 통해 배경을 알아보자.

기업과 기업가의 사회적 책무에 대한 저술이 등장한 것이 1950년대이다. 이후 개념, 정의, 다루는 범위에 많은 변화를 겪어왔다. 학술적으로 아직도 여러 다른 설명들이 경합 중이다. 기업과 사회의 관계에 대한 여러 새로운 쟁점이 등장할 때마다 CSR이라는 용어가 포용하다 보니 외연이 급격히 확장되면서 지금은 상당히 이질적인 내용들이 CSR이라는 종합상자 안에 자리를 같이하게 된 양상이다.⁸⁾ 역사적으로 초기 CSR은 주로 사회적 이슈를 의미하는 용어로 사용되었고 환경적 주제는 기업 지속가능성(Corporate Sustainability) 용어로 읽혔지만, 양쪽에서 서로 범위를 확장하면서 지금은 동일한 내용을 가

8) 학술체계에서 다른 경영 개념들과 다르게 CSR 개념이 아직도 모호한 채로 남아있게 되었는지 반성과 비판을 이해하려면 Oosterhout와 Heugens(2008)를 추천한다. 이 사례가 대학원 수업에서 사용될 때 이 저술을 읽고 토론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리키는 용어로 호환된다(Van Marrewijk, 2003). 기업의 책임을 대상과 종류로 구분하여 법적, 경제적, 윤리적, 재량(박애)적 책임으로 정리한 Carroll의 설명은 초창기에 많이 인용되었지만, 지금은 잘 사용되지 않는다. 주주를 포함한 이해관계자에 대한 균형 잡힌 포괄적 책임으로 이해하는 것이 큰 흐름이다(이수열, 김유상 2018; 이수열, 홍미경, 2016). CSR과 지속가능 발전(Sustainable Development)이라는, 다소 추상적이고 모호한 관념을 비즈니스 의미로 보다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Elkington은 트리플바텀라인(Triple Bottom Lines)을 제안했다(Elkington, 1997). 기업 본연의 경제적(재무적) 성과(Bottom Line)뿐 아니라 사회적, 환경적 성과(Double Bottom Lines)를 포괄적이고 균형 있게 추구하는 것이 CSR이자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비즈니스의 기여라고 했다. CSR에 비즈니스에서 익숙한 순익(Bottom Line) 개념을 적용하면서 어느 영역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보다 명확해졌다. 경제, 사회, 환경 세 가지 범주 구성은 매우 직관적이다. CSR에 대한 정의는 수십 가지가 넘지만, 이들은 모두 공통적으로 추구해야 할 방향으로 경제, 사회, 환경 세 가지를 언급하고 있다. 여기에 기업의 재량적 행동(Discretion)을 강조한다(Dahlsrud, 2008). 환경(E), 사회(S), 지배구조(G), 세 영역이 CSR의 활동 영역으로 분류되는 맥락이다.

ESG는 원래 CSR의 성과를 측정하고 평가하기 위한 도구에서 출발했다. 기업의 재무적 성과는 일반화된 공통의 측정 도구가 존재한다. 예를 들어 수익률(ROA 등)이나 주가 상승률과 같은 것이다. 하지만 CSR을 얼마나 잘했는지(또는 열심히 했는지), 성과(Corporate Social Performance: CSP라고 부르기도 한다)를 보여줄 수 있는 지표는 부족했다. 종업원 인권, 다양성부터 시장에서 공정경쟁, 지역 사회 공헌, 환경 배출 감소, 회계 투명성 등 CSR이 포함하는 활동의 범주가 너무 포괄적이어서 한두 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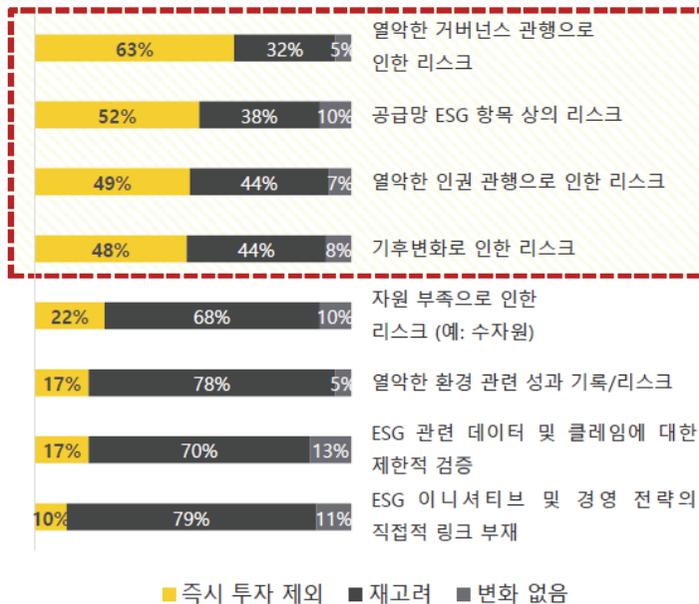
지 지표로 CSR 성과를 대변하는 것은 태생적으로 불가능했다. 세부 영역을 나누어 평가한 뒤 종합시점수로 보여주는 신용등급제 접근법이 고안되어 CSR 성과를 평가하는 방법으로 보편화되었다. 이때 평가영역이 환경적 측면(E), 사회적 측면(S), 그리고 지배구조 측면(G) 세 가지로 분류되었기 때문에 이를 줄여서 ESG 평가라고 불렀다. ESG는 전통적으로 'CSR 성과 평가' 또는 'CSR 성과'를 의미하는 용어였고 투자 부문, 금융시장에서 사용된 CSR 언어였다.

ESG가 CSR을 대체하며 급증한 이유는 금융시장의 지속가능 금융(Sustainable Finance) 움직임 때문이다(임영균, 이석규 2019). 지속가능 금융 역시 20여 년 이상 역사를 가지고 있다. ESG 평가등급을 투자 포트폴리오에 반영하겠다는 금융권의 뜻이다. 긴 역사에 비해 임팩트가 크지 않아 체감되는 영향이 적었다. 그러다 2010년대 중반부터 ESG를 반영한 투자가 새로운 물살을 타기 시작했다. 자본시장에서 ESG를 반영하는 정책 수가 급증했다. 유엔 책임투자원칙(UN Principles of Responsible Investment: UN PRI)에 따르면 OECD를 포함한 주요 국가들이 도입한 ESG가 반영된 자본시장 규제가 2010년 이후 10년간 세 배 증가했다(UN PRI, 2020). 정부가 주도하는 연기금 운용에서 ESG 요소를 고려하는 것, 자산운용사의 스투어드십코드 적용, ESG 정보공시를 강화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유럽과 미국의 그린뉴딜 정책도 ESG 부흥을 이끌었다. 이들 녹색 재정부흥 정책에서 조성되는 수백조원의 기금을 투자할 곳을 찾을 때 ESG 적합 분야를 우선 고려하게 된다.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인 블랙록(BlackRock)을 선두로 글로벌 투자기관이 투자 포트폴리오를 선정할 때 기업의 ESG를 핵심 요소로 반영하겠다고 공식 선언한 후 실제로 투자기업들에게 ESG 위험성을 검토하라고 서한을 보낸 것도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다. 요약하자면 자본시장이 움직

였기 때문이고, '돈'이 ESG를 원하기 때문이다. CSR 성과 평가를 의미하는 금융시장의 용어였던 ESG가 CSR의 대리 지표이자 대체 상징물로 등장하게 된 맥락이다.

이 사례는 미얀마 군부 독재, 그리고 쿠데타와 같은 정치적 불안정 상황이 야기하는 비즈니스 위협과 의사결정을 다루고 있다. 미얀마의 자원개발 비즈니스는 군부 독재, 정치 불안, 부패(Corruption), 현직인 인권, 환경문제 등 ESG 관련된 여러 위협을 내포하고 있다. 금융시장이 갈수록 ESG를 중요하게 고려하는 이유는 리스크 관리 때문이다. 글로벌 회계 컨설팅 회사인 Ernst & Young (EY) 보고에 따르면 금융기관이 투자 의사 결정에서 중요하게 고려하는 리스크 항목 중에서 인권과 공급망(해외사업 또는 조달)에서 리스크가 상위권을 차지한다(박재홍, 2021). 해외 자원개발 비즈니스에서 군사독재정권 정점은 태생적으로 비껴가기 어려운 문제다. 나이지

리아 삼각주 나이지(Niger) 지역의 유전개발 사업 과정에서 오랜 논란이 되었던 로열더치셸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나이지 델타지역 유전개발에서 기름유출로 심각한 환경문제가 제기되었는데 지역 원주민 오고니족의 저항을 독재 군사 정권이 무력화하는 과정에서 사법살인과 인권 유린 문제로 확장된 사건이다. 1990년대 초반 일이다. 적도원칙(Equator Principle)이 등장한 배경이다. 개발도상국에 투자되는 대규모 프로젝트 파이낸싱에서 환경, 인권 리스크가 지속적으로 쟁점이 되자 2003년 글로벌 대형 투자기관 10개 사가 모여 만든 자발적 활동이다. 천만 달러 이상 대형 개발 프로젝트가 환경문제나 지역주민의 인권침해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을 경우 투자하지 않겠다는 자발적 약속으로 지금은 72개 금융기관이 협약을 맺었다. UN의 책임투자원칙(UN PRI) 협약과 궤를 같이한다(적도원칙은 프로젝트 파이낸싱 상황에서 책임투자 원칙으로 이해하면 된다).



출처: 박재홍, 2021

<TN 그림 1> 투자 의사결정 시 주요 ESG 리스크 요인

대표적인 ESG 평가기관인 MSCI 역시 ESG 등급을 평가할 때 G영역(Governance)에서 ‘부패 및 정치 불안정성(Corruption and Instability)’ 요소를 고려하고 있다(Khan, 2019). 요약하면 이 사례는 해외사업, 특히 자원개발 비즈니스에서 겪을 수 있는 전형적인 ESG 리스크 상황을 묘사하고 있다.

Q1. 2021년 기준으로 미얀마 포스코인터내셔널 사업을 정리해 보시오. 미얀마 해외사업의 특징, 중요성, 약점은 무엇인가? 어떤 ESG 쟁점이 있는가?

Ⅲ. 3.1 중심으로 포스코인터의 미얀마 사업이 무엇인지 이해하고 그 사업이 포스코에 갖는 중요성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한다. 각 사업이 갖는 ESG 핵심 쟁점 위주로 대략적인 맥락을 이해하도록 하고 여기서는 ESG 쟁점을 너무 깊이, 세세하게 다루지 않는다.

포스코인터내셔널은 포스코의 무역, 해외사업개발을 담당하는 계열사이다. 포스코인터의 미얀마 해외 사업은 크게 자원개발(가스전 개발), 강판 판매, 부동산 호텔사업으로 구성된다. 이 중 규모가 가장 크고 오래된 것은 미얀마 가스전 개발 사업이다. 슈웨 지역 천연가스 채굴, 생산, 판매 사업인 가스전 사업은 2004년 탐사를 시작한 후 10년이 지난 2014년부터 생산, 판매가 가능했다. 높은 불확실성 속에서 2019년 기준으로 5,000억 원에 달하는 이익을 가져온 대표적인 해외 자원개발 사업이다. 강판 판매는 현지법인인 포스코C&C가 맡고 있고 규모가 크지 않지만, 포스코 대표 상품인 강판 판매 확대의 전초기지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

ESG 쟁점은 가스전 사업개발, 생산, 판매 사업이 군부 독재정권과 유착되어 있다는 점이다. 자원개발 사업에서 흔히 볼 수 있는 ESG 위험이다. 개발 사업권을 얻기 위해 정부 허가가 필요한 자원개발에서 독재정권에 협력하지 않고는 사업 자체가 불가능하

다. 독재정권이 해당 지역에서 정치적 문제를 일으키게 되면 자연스럽게 독재정권 유착, 자금줄 역할, 피의 자원(Blood Resources)으로 비난받을 가능성이 크다. 이번 미얀마 사태는 더 복잡하다. (예전 독재정권이었다가 권력을 이양하고 배후에서 힘을 갖고 있던) 군부가 쿠데타를 일으켜 다시 정권을 잡고 시민의 민주화 요구를 탄압하는 상황이 발생하였기 때문이다. 민주화 유혈 사태에 대해 전 세계가 주목하는 상황에서 독재정권의 보호 속에 키워온 글로벌 비즈니스가 쟁점에 휘말리게 된 것이다. 규모가 작지만 포스코C&C도 군부 사업의 파트너였고 부동산호텔업도 다 뛰여 있어 군부 독재 쿠데타로 다시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된 상황이다.

Q2. 포스코가 대우인터내셔널을 인수하게 된 배경은 무엇인가? 대우인터내셔널 인수과정에서 잠재된 ESG 위험은 무엇이었는가? 포스코가 이를 제대로 평가하여 대응하였다고 생각하는가?

Ⅳ 장을 중심으로 분석하고 토론한다. 대우인터내셔널이 무역, 해외사업 부분에서 가진 장점과 역량을 이해하고 포스코가 해외 비즈니스 확장을 위해 대우인터내셔널 인수에 얼마나 공을 들였는지 맥락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한다. 대우인터내셔널 회사가 해외 사업을 할 때부터 왜 잠재적인 ESG 쟁점과 위험이 반복될 수밖에 없는지 배경을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다(해외사업에 있어 ‘필요악’ ‘숙명’ 느낌을 받을 수 있으면 좋다. 다른 토론 문제와 연결된다).

이 사례에는 2010년 인수 당시 포스코가 대우인터내셔널 해외사업에 내재된 ESG 쟁점과 위험을 어떻게 평가했는지를 보여주는 세세한 내용은 담겨있지 않다. 다만 당시에는 해외사업 중요성에 비해 ESG 쟁점은 상대적으로 중요한 문제가 아니었다. 기업 인수는 가장 중요한 전략적 의사결정 중 하나이다. 인수합병은 인수하는 기업의 모든 것을 우리 회사로 가

져오는 것이다. 시장, 기술, 인력, 평판, 비용, 그리고 위험까지. ESG 쟁점은 일반적으로 잠재되어 있어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거나 무시될 가능성이 크다. ESG 잠재 위험 때문에 기업 인수를 하지 말아야 한다는 논리나 토론이 되지 않아야 한다. ESG 잠재 위험은 이후에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 드러날 수가 있어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인수하면서 이러한 ESG 위험을 지속적으로 완화하는 대응을 하는 것과 무시하는 것의 차이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다.

Q3. [추가 자료조사와 분석] 미얀마 쿠데타 전후 포스코에 대한 국내 소셜미디어를 조사해 보라. 미얀마 사태가 포스코 평판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가? 사실관계가 확실하지 않은 상황에서 소셜미디어를 통해 확산되는 부정적인 평판을 기업은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가?

소셜미디어 조사는 구글, 네이버 등 검색어로 기사 검색을 할 수 있다. 무료로 활용되는 다른 소셜미디어 빅데이터 분석을 수행해도 된다. 언론 기사 빅데이터를 제공하는 빅카인즈(www.bigkinds.or.kr) 사이트를 이용할 수 있다. 2021년 2월 이전 6개월, 이후 6개월 포스코+미얀마 관련 검색어를 조사하여 흐름 변화를 파악하여 유의미한 결과가 있는지 확인한다. 다음 내용은 유료 빅데이터 분석 사이트를 이용한 것이다.

빅데이터를 이용한 소셜분석은 썬트렌드(www.some.co.kr)서비스를 이용하였다. 포스코 단일 검색어, 미얀마를 포함한 포스코 검색어를 지정해 해당 기간에 블로그, 트위터, 인스타그램 등 사회관계망 노출 빈도이다. 2021년 11월 이후 6개월간 여러 매체와 사회관계망에서 오르내린 포스코 언급 중에서 2021년 2월 이후 미얀마 검색어를 포함한 내용 노출이 급격하게 늘어난 것이 확인된다. 포스코 단일 검색어 분량 중 40%에 육박하는 내용이 미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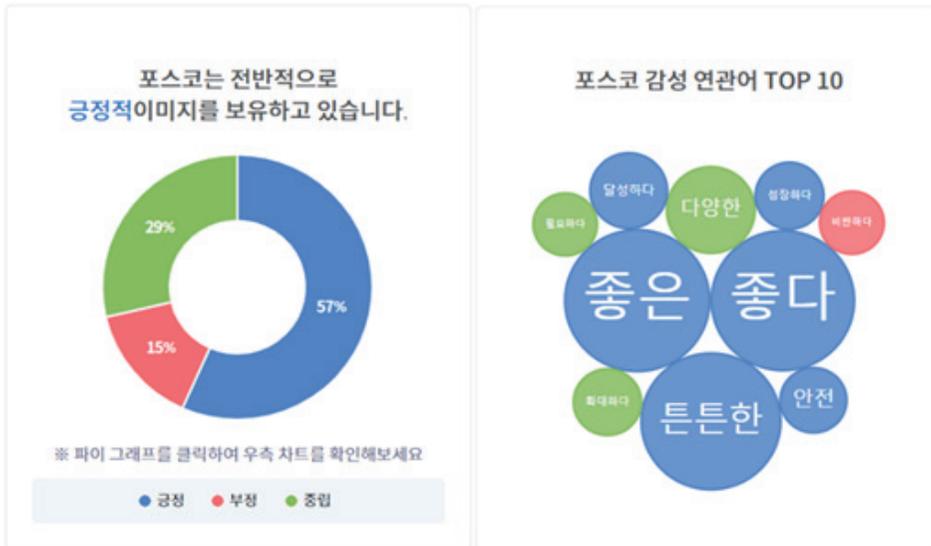
마에 대한 것일 때도 있었다.

위 유료서비스는 소셜미디어 노출의 평판을 분석해 준다. 빅데이터는 2021년 2월을 전후해서 포스코에 대한 평판에 좋지 않은 조짐이 있었음을 감지하고 있다(TN 그림 2, TN 그림 3). 사회관계망에서 회자된 포스코 이야기에 담긴 느낌, 감정, 태도를 종합해 보면 미얀마 사태 이전에 57%에 달했던 긍정적인 이미지가 사건이 발생한 2월 이후에는 42%로 급격히 줄고 부정적인 정서가 24%로 급격히 증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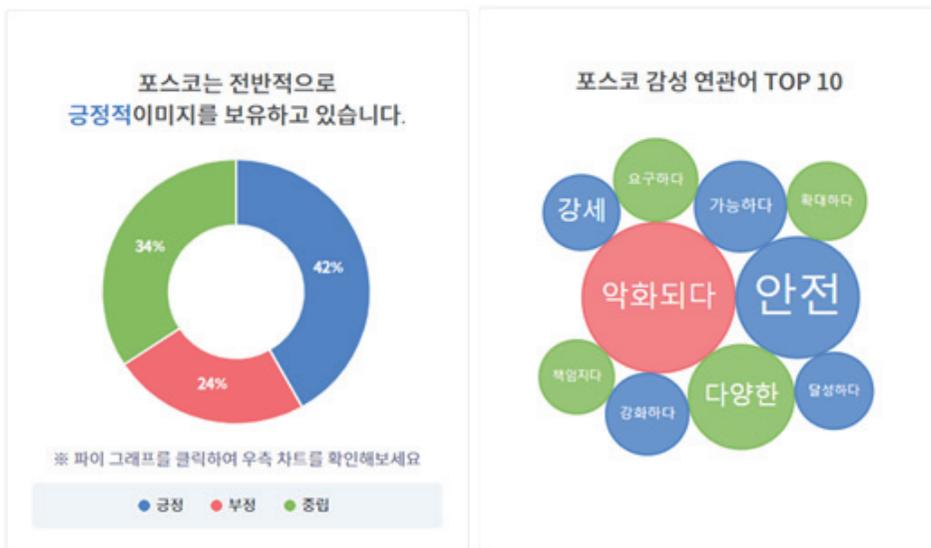
기업에 소셜미디어 기사의 사실관계는 중요할까? 사실일 수도, 가짜일 수도, 또는 사실이 해석에 따라 일부 왜곡될 수도 있다. 개인이라면 왜곡이나 가짜 정보의 범람은 바로잡아야 하는 일이다. 물론 기업도 왜곡이나 가짜를 방치하라는 의미는 아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결과로 나타나는 감정이다. 'Feelings are facts'라는 경영 격언이 있다. 사실이 아닌 내용이 감성을 왜곡한다면 분명 기업에는 억울한 일이 된다. 실제로 기업은 억울함을 호소하여 사실을 해명하려는 시도를 먼저 하게 된다. 하지만 기업에는 진실, 가짜 여부를 떠나 결과적으로 대중이 느끼는 감정이 중요하며, 따라서 감정의 원천을 이해하고 대응하는 것의 중요성을 생각해 볼 수 있도록 한다(토론에 옳고 그름은 없지만, 기업이 무언가를 억울해하며 해명에 집중하는 것은 올바른 대응법이 아니라는 점은 이해시킬 필요가 있다).

Q4. [추가 자료조사와 분석] 대우인터내셔널(이후 포스코 편입) 해외사업에서 쟁점이 되었던 또 다른 ESG 위험 사례인 우즈베키스탄 면화 사업에서 있었던 아동노동 문제에 대해 조사해 보라. 어떤 사건이었는데? 어떤 과정을 거쳐 어떻게 해결되었는가?

이 토론 문제를 통해 대우인터내셔널이 갖고 있던



〈TN 그림 2〉 빅데이터가 보여주는 포스코 평판 (미얀마 사태 이전 3개월)



〈TN 그림 3〉 빅데이터가 보여주는 포스코 평판 (미얀마 사태 이후 3개월)

ESG 쟁점이 미얀마 문제만이 아니었다는 맥락을 알 수 있도록 한다. 이 회사가 해외사업을 하면서 여러 곳에서 여러 문제에 얽혀 있었다는 점이다. 앞선 토론 문제 Q2와 연결되어 있다. 해외사업의 필요악이

나 숙명 같은 맥락을 이해하면 좋다(어쩔 수 없기 때문에 옳다는 의미는 아니다). 정부 차원에서 문제가 있는 ESG 쟁점 사례이다. 이 추가적인 사례를 통해 ESG 위험이 어떤 과정을 거쳐 해결될 수 있는지 힌

트를 얻을 수 있다. 우즈베키스탄 인권 문제와 미얀마 독재 정부 사례는 유형도 다르고 강도도 다르다. 이 차이도 이해하면서 비교해 볼 수 있도록 토론을 이끌면 좋다.

〈포스코인터내셔널의 우즈베키스탄 면화 사업과 ESG 쟁점 사례 정리〉

포스코인터내셔널의 전신인 대우인터내셔널이 진행해 온 해외사업에서 ESG 쟁점이 되었던 사례로 우즈베키스탄(이하 우즈벡으로 명칭) 면화 사업이 있다. 2010년대 초반 회사는 우즈벡 면화 방직공장을 운영하면서 아동노동을 이용해 국제적인 비난에 직면한 적이 있던 사례이다. 대우인터내셔널은 우즈벡에 최초로 투자한 국내 기업으로 2014년 기준으로 이 나라 생산 목화의 5%를 매입하여 수출하였다. 대우인터내셔널은 2010년 말, 우즈벡의 오래된 면 펄프 공장을 인수하고 한국조폐공사 투자를 받아 글로벌콤스코대우(Global Komsco Daewoo, 이하 GKD)를 설립했다. 여기서 생산한 면 펄프는 우리나라 화폐 제작에 사용된다. 문제는 대우인터내셔널

이 우즈벡에서 목화 수확에 17세 미만 아동을 투입해 아동노동에 대한 세계 규범을 어겼다는 비판이었다. 우즈벡의 7~15세 아이들은 목화 수확 철이 되면 정부 차원에서 퇴학, 학교 퇴출 등의 위협을 받으며 강제로 전국의 목화밭으로 보내졌다. 이들은 열악한 환경에서 매일 60kg의 수확 할당량을 채워야 했다고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농약과 살충제와 같은 화학물질 위험에도 노출된다. 국제 NGO인 코튼 캠페인(Cotton Campaign)은 탐사 보도를 통해 우즈벡에서 전국적으로 아동 강제노동이 시행되고 있으며 대우인터내셔널이 투자한 GKD가 국제 규범을 준수할 것을 촉구했다. 대한민국 국회도 이러한 사실을 공론화하며 대응을 요구한 바 있다(Cotton Campaign, 2013).

“우즈베키스탄 GKD 노동 관행은 국제협약과 자체 윤리강령에 위배된다. 국가 이미지가 훼손되고, 투자 손실이 더 커지기 전에 사업을 철수해야 한다”

- 박원석 의원 (정의당) (시사오늘, 2014.02.18.)

“조폐공사가 우즈벡 목화 사업 현지법인에 투자했다.



사진 출처: Associated Press, Associated Press, <https://www.nytimes.com/2013/12/18/world/asia/forced-labor-lives-on-in-uzbekistans-cotton-fields.html> (접속 일자: 2021.05.22)

〈TN 그림 4〉 우즈벡 학생의 2010년 목화 수확 모습

이 산업은 아동노동으로 국제적 악명이 높다. 사업 수익률도 예상보다 낮다. 즉각 철수해야 한다” - 윤호중 의원 (민주통합당) (프레지던트미디어, 2016.01.23.)

우즈벡 노동법은 근로 가능 최저 연령을 16세로 정하고 있다. 아이들을 동원한 목화 수확은 정부가 주도한다. 2013년 기준으로 목화는 우즈벡 수출의 8%를 차지할 정도로 중요하다(The Wall Street Journal, 2014.08.13.). 이 나라에서 목화는 ‘하얀 황금’으로 불릴 정도다. 사실 우즈벡 목화산업에서 아동노동, 강제노동 쟁점은 어제오늘 문제가 아니었다. 2008년 월마트는 의류 등을 납품하는 공급사들에게 우즈벡산 면화 사용을 중단하라고 요구한 바 있다(The New York Times, 2008.10.01.). 국제법상 금지하는 아동노동 기준은 17세 이하 아이들이다. 우즈벡 노동법을 준수했다 해도 국제협약 위반이 된다. GKD 쟁점은 해외 신문 The Wall Street Journal에도 등장하면서 국제적인 이목을 끌었다(The Wall Street Journal, 2014.08.13.). 우즈벡 목화농장의 노동 관행 문제는 대우인터내셔널 평판을 악화시켰다. 2013년 11월 해외 순위정보 사이트인 리스트버스(Listverse)는 ‘인권 문제 논란이 있는 10대 기업’에 대우인터내셔널을 7위로 올렸다(Listverse, 2014.06.20.).

한국 정부는 2016년에 대우인터내셔널 쟁점에 대해 국제 규범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최종적으로 통고했다. OECD의 한국 국가연락사무소(National Contact Point: 한국 NPC)는 여러 NGO가 제기한 이의제기를 기각했다. 시민단체는 우즈벡에서 벌어지는 조직적이고 지속적인 강제노동을 알면서도 계속 우즈벡 면화를 구매하는 대우인터내셔널, 모기업 포스코, 투자자 국민연금, 한국조폐공사가 OECD의 가이드라인에 위배된다고 조사를 요청했다. 한국 NPC는 “해당 기업들이 OECD 가이드라인에서 요구하는 실사(Audit) 의무를 위반하였다거나 아동노동

및 강제노동에 기여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나아가 우즈베키스탄 정부에 대하여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라며 이의제기를 종결하였다. 2015년 한국 NCP 결정은 대우인터내셔널 입장에 힘을 실어 준 결과가 되었다.

우즈벡 면화 사업에서 제기된 인권 문제는 포스코가 대우인터내셔널을 인수한 이후인 2010년대 본격적으로 등장하였지만, 시작은 2007년 영국 BBC가 우즈벡의 아동 강제노동 사안을 보도했을 때였다. 대우인터내셔널이 포스코 그룹에 편입된 후 처음 직면한 ESG 위협이었다. 포스코 시대의 대우인터내셔널의 초기 대응은 그 이전 방식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문제 제기에 크게 신경 쓰지 않는 모습이었다. 필요할 경우 해명하거나 점진적으로 조치를 취하는데 주안점을 두었다.

대우인터내셔널은 초기에 제기되는 비난을 반박하고 해명하는 자세를 취했다. 현지에서 직원을 채용할 때면 인체나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사람만 채용하고 있다며 시민단체의 비난에 반박했다. 해당 국가가 정한 법규를 준수하면서 사업을 해 왔고 사기업 입장에서 나라가 하는 일에 관여하기 쉽지 않다고 항변했다. 현지에서 발생하는 아동노동 문제를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정부에 지적할 수는 없는 노릇이라며 책임을 우즈벡 정부로 돌렸다. 목화산업 현장에서 실제로 아동 강제노동이 일어나는 것을 회사가 알고 있었다는 것을 부인했다. 다만 정부에게 지속적으로 이러한 쟁점에 대한 우려를 전달해 왔다고 주장했다(중앙일보, 2011.12.13.). 하지만 우즈벡 목화 사업제안서에 ‘...이 나라는 법 제도가 잘 정비되지 않고 모호한 것이 많다. 되는 것도 없지만 안 되는 것도 없다...’라는 내용이 적혀 있어 정부의 강제노동을 은근히 반기는 태도를 보여 도덕성 논란을 자초하기도 했다(시사오늘, 2014.02.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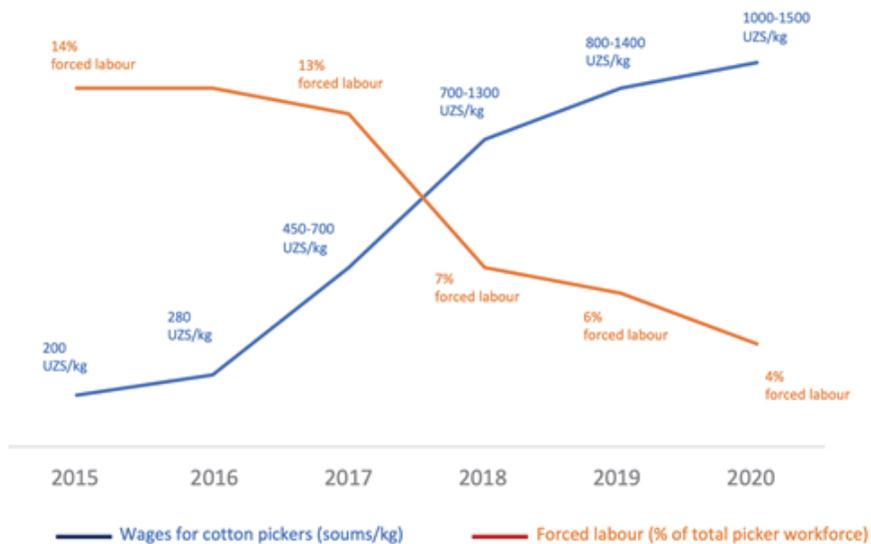
이러한 대응 방식에 변화를 준 사건이 발생한다. 그것은 글로벌 고객사의 거래중단 통보였다. 나이키,

Gap, H&M을 포함한 136개 의류 브랜드가 우즈베크 면화 사용을 거부한다고 발표했다(The New York Times, 2013.12.18.). 2013년에 나이키가 대우인터내셔널과 거래중단을 통보했다. 우즈베크 면화가 문제가 되자 나이키는 자사의 책임 있는 공급망(Responsible Supply Chain) 정책에 따라 공급사슬 배제한 조치이다. 대우인터내셔널은 부산 섬유공장에서 생산한 합성피혁을 나이키에 납품해 왔다. 부산공장이 우즈베크 면화와 직접 관련이 없음에도 거래 중단 역풍을 맞은 셈이다(인천투데이, 2013.08.29.). 손실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대우인터내셔널은 부산 섬유공장을 태광실업에 매각하였다(동아일보, 2013.12.09.).

대우인터내셔널의 우즈베크 면화 사업은 이후에도 계속되었다. 아동노동, 강제노동 쟁점이 세계 여러 나라에서 계속 확산되고 있었고 우즈베크 정부 차원에서

도 변화가 필요한 사안이었다. 대우인터내셔널은 우선 실사 팀을 현지에 파견하여 정부와 논의를 시작하였다. 우즈베크 정부는 국제노동기구와 2014년 노동환경개선프로그램(Decent Work Country Program: DWCP)을 시작하기로 협약을 체결하였다. 무엇보다 목화 수확 작업이 자동화되면서 자연스럽게 아동노동, 강제노동 필요성이 줄어들기도 했다. 2015년에는 국제노동기구 조사단과 협력하여 우즈베크 지역의 면화농장을 점검하고 강제노동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해 우즈베크 전국에 5만 개가 넘는 포스터를 제작 배포하였다(포스코 연례기업보고서, 2014, 2015). 우즈베크 면화 사업에서 인권 문제는 지속적으로 감소하였다. 2021년에 국제노동기구는 공식적으로 우즈베크 강제노동 쟁점은 더 이상 큰 문제가 아니라고 선언하였다(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2021.01.29.).

Chart: Wages and forced labour percentages (2015-2020)



출처: 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2021.01.29.

〈TN 그림 5〉 우즈베키스탄 목화산업의 강제노동 비율 변화

Q5. 포스코의 ESG 경영에 대해 전반적으로 평가해 보라. 긍정적인 부분, 부정적인 부분 모두 종합적으로 평가하라. [포스코의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자료를 찾아 정리해 볼 수 있다. 또는 아래 [참고] 부분을 사전에 나누어주고 이 내용만을 토대로 Q5에 대한 생각을 정리하도록 할 수도 있다]

이 사례는 미안마 해외사업 진행 과정에서 얽힌 ESG 쟁점과 위협을 다루고 있다. 사례에는 포스코와 포스코인터내셔널 ESG 경영의 부정적인 면이 부각되어 있다. 미안마 사례는 회사의 여러 비즈니스 중 하나이며 다양한 경영활동 범위 중 일부분이다. 아래 [참고1]은 포스코의 ESG 경영과 외부 평가 내용이 기술되어 있다. 국내 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하고 토론하도록 한다. 예를 들면, 전체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는 포스코의 ESG 경영의 미안마 사례가 정치적 상황에 의해 우발적으로 생긴 것인지 예외적인 것인지, 기타 해외사업에서 ESG 쟁점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것인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와 함께 ESG 평가와 등급이 의미가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등을 논쟁할 수 있다.

[참고 1] 포스코의 ESG 경영

포스코의 ESG 경영은 기업 시민(Corporate Citizen) 경영이념(김용근, 이정인 2021)에 바탕을 두고 있다. 포스코는 2019년 기업 시민현장을 통해 “기업의 경영활동은 사회를 기반으로 이루어지면, 사회와 조화를 통해 성장하고 영속할 수 있다. 사회의 자원을 활용해 성장한 기업이 사회공동체의 일원으로서 경제적 이윤 창출을 넘어 사회문제 해결에 동참하고 인류의 번영과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 가는데 기여한다”라는 기업 시민 이념을 채택했다(포스코 기업 시민현장, 2021). 위드포스코(With Posco) 경영 비전은 포스코 모든 계열사가 추구하는 방향이다.

포스코 그룹은 비즈니스 영역, 사회 영역, 사람 영역, 지배구조 영역에서 ESG 핵심 활동을 정의하였고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와 연관성을 매년 추적 보고하고 있다.

포스코는 지속 가능 경영, ESG 경영에 있어 국내 기업 중에서는 앞선 대응을 하는 기업으로 평가된다. 세계적으로 매우 이른 시기였던 1995년에 국내 기업 중 처음으로 환경보고서를 낸 후 매년 지속가능성 연례 보고서를 발행해 왔다. 2012년부터 유엔 글로벌컴팩트에 가입하였다. 인권, 노동, 환경, 반부패에 관한 유엔의 10대 원칙을 기업 운영에 반영하는 자발적인 움직임이다. 기후변화 분야에서는 2003년부터 탄소정보공개프로젝트(Carbon Disclosure Project: CDP)에 참여하여 정보를 공개해 왔고 2020년에는 국내 기업 최초로 기후변화재무정보공개프로젝트(Task-force on Climate-related Financial Disclosure: TCFD) 지지를 선언하여 동참하고 있다. 포스코는 ESG 경영에 대해 지속적으로 높은 등급을 받고 있다. 다우존스스스테이너빌리티지수(Dow Jones Sustainability Index: DJSI) 2020년 철강 분야 3위, 2021년 지속가능성 우수기업 명단은 메달 등급(Silver Class), 한국지배구조원 2020년 ESG 평가 A등급, 서스틴베스트 2020년 AA 등급을 받았다. 포스코인터도 한국지배구조원 ESG평가에서 2019년, 2020년 2년 연속 최우량 등급 평가를 받았다(포스코 홈페이지, 2021).

Q6. 미안마 ESG 쟁점에 대해 포스코에 제언하십시오. [도덕적 충고가 아니어야 하며, 옳고 그름을 논하더라도 반드시 비즈니스 측면의 해석과 용어를 이용하여 기술하십시오. 추가 자료조사: 미안마 사태 이후 포스코와 포스코인터내셔널 주가 동향을 조사하십시오]

미안마 상황에서 포스코와 포스코인터내셔널이 어



〈TN 그림 6〉 포스코인터내셔널 주가 동향 (2020.05.26.~2021.05.25.)

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논증하고 토론하도록 한다. 도덕적으로 해야 한다, 하지 말아야 한다는 선언적인 논의에 머무르지 않도록 한다. 비즈니스 본질, 윤리적 쟁점, ESG 범위와 한계 등을 종합적으로 생각하고 의견을 정리하여 토론해야 한다. 윤리적 논증을 해야 할 경우에도 옳지 않은 일을 해결해야 하는 목적에서 어떤 방법을 써야 하는지, 비즈니스 결과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해야 하는 목적에서 어떤 방법을 써야 하는지 등 목적, 수단에 따라 다른 접근법을 비교해가며 생각을 정리할 수 있도록 한다.

아래〈TN 그림6〉는 미얀마 사태 이후 포스코인터내셔널의 주가 변화를 조사한 것이다. 이 사례와 같이 쟁점이 되는 ESG 위험이 실제 비즈니스 성과에는 그다지 영향을 주지 않는 경우도 많다(ESG 경영을 잘하는 기업, 윤리적인 기업이 경영성과가 좋을 것이라는 주장(Doing Well by Doing Good)에 대해 학술적 지지가 높은 것이 아니다). ESG 위험(또는 비윤리적으로 보이는 경영이나 사업)이 기업 성과(이윤이나 기업가치)가 크게 영향을 주지 못하는 현실을 이해하면 논쟁이 더 활발해질 것이다.

[윤리적 논의 확장을 위한 조언]

Ⅶ 장의 주장3과 주장4는 내용 면에서 유사해 보인다. 하지만 윤리 관점에서 전체가 다르다. 기업윤

리 주제로 토론을 이어나갈 때 다음 사항을 지도할 수 있다. 윤리는 옳고 그름의 분별이다. 윤리 철학에서 두 가지 상반된 논리를 적용해 볼 수 있다. 공리주의(Utilitarianism)와 의무론(Deontology)이 그것이다. 공리주의는 결과주의의 한 종류로 행동이 좋은 결과를 가져왔는지를 보고 행동의 옳고 그름을 판단한다. 의무론은 결과와 상관없이 행동 자체가 옳은지 그른지 판단하는 규범적 윤리이론이다. 비즈니스는 지속되어야 한다는 유사한 주장임에도 주장3은 결과론적이다. ESG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기업 성과는 변함없으니(좋은) 비즈니스를 계속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주장3에 따르면 만일 미얀마 사태 이후 포스코와 계열사의 기업가치(주가) 하락이 있다면 비즈니스는 재고되어야 하겠다. 반면 주장4는 결과와 상관없이 '비즈니스와 정치는 구분되어야 한다'라는 규범론에 가깝다. 기업가치의 등락(결과)과 관계없이 비즈니스를 정치와 엮어서 생각하지 말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어떤 상황에서 기업이 저조한 성과를 낸다면 기업은 당연히 비즈니스 자체를 다시 생각할 것이다. 주장3과 주장4는 ESG의 핵심 논쟁 중 하나인 '왜 ESG 성과를 높여야 하는가?' 쟁점의 다른 버전이다. ESG(또는 CSR)를 잘하면 비즈니스에 도움이 된다(Doing Well by Doing Good)는 논리로 ESG를 해야 한다는 주장은 공리주의에 가깝다. 반면 ESG는 그 자체로 기업이 추구해야 하는

가치라는 주장을 한다면 이는 의무론에 가깝다. 이처럼 주장3과 주장4는 윤리적 해석과 논의가 가능한 토론 주제이다. 하지만 한두 가지 쟁점에 집중하기 위해 윤리적 논쟁은 별개로 다룰 것을 추천한다.

REFERENCES

- Cotton Campaign (2013), Review of the first month of the 2013 cotton harvest in Uzbekistan: State-forced labor system continues. (https://www.uzbekforum.org/wp-content/uploads/2013/11/2013CottonHarvest_end_report1.pdf) (접속일자: 2021.05.22.).
- Dahlsrud, A. (2008), "How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is defined: an analysis of 37 Definitions,"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and Environmental Management*, 15, 1-13.
- Elkington, J. (1997), *Cannibals with forks: The triple bottom line of 21st century business*, Capstone, Oxford.
- 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2021.01.29일자, "Systemic forced labour and child labour has come to an end in Uzbek cotton" (https://www.ilo.org/washington/news/WCMS_767753/lang-en/index.htm) (접속일자: 2021.07.23.).
- Khan, M. (2019), "Corporate governance, ESG, and stock returns around the world," *Financial Analysts Journal*, 75(4), 103-123.
- Listverse 2014.06.20.일자, "10 famous companies with a shocking human rights problem" (<https://listverse.com/2013/11/09/10-famous-companies-with-a-shocking-human-rights-problem>) (접속일자: 2021.05.22.).
- Oosterhout, J. van. and Heugens, P.P.M.A.R. (2008), "Much ado about nothing: A conceptual critique of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Crane, A., McWilliams, A., Matten, D., Moon, J. and Siegel, D. (Eds.), *The Oxford Handbook of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Oxford University Press, Oxford, UK. 197-223.
- The New York Times 2008.10.01.일자, "Uzbekistan: Wal-Mart bans cotton" (https://www.nytimes.com/2008/10/01/business/worldbusiness/01fbriefs-WALMARTBANSC_BR.html) (접속일자: 2021.05.22.).
- The New York Times 2013.12.18.일자, "In Uzbekistan, the practice of forced labor lives on during the cotton harvest" (<https://www.nytimes.com/2013/12/18/world/asia/forced-labor-lives-on-in-uzbekistans-cotton-fields.html>) (접속일자: 2021.05.22.).
- The Wall Street Journal 2014.08.13.일자, "Posco Unit Admits using cotton from forced and child labor" (<https://www.wsj.com/articles/daewoo-faces-criticism-for-use-of-uzbekistan-cotton-made-with-forced-labor-1407918539>) (접속일자: 2021.05.22.).
- UN Principles of Responsible Investment (2020), Responsible investment regulation map. (<https://www.unpri.org/policy/responsible-investment-regulation-map/208.article>) (접속일자: 2021.02.21.).
- Van Marrewijk, M. 2003. "Concepts and Definitions of CSR and Corporate Sustainability: Between Agency and Communion," *Journal of Business Ethics*, 44, 95-105.

국내참고문헌

- 김용근, 이정인 (2021), "포스코인터내셔널의 기업시민 경영이념 실천사례 연구: 중소기업 글로벌 마케팅 협업포탈 사례를 중심으로," *Korea Business Review*, 25(신년 특별호), 1-19.

- 동아일보 2013.12.09.일자, “인권경영 외면하면 세계가 외면” (<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131209/59418989/1>) (접속일자: 2021.05.21.).
- 박재흠 (2021), “국내외 ESG동향 및 대외 ESG정보요구 증가에 따른 시사점,” 한국윤리경영학회 ESG: 환경성과 측정 및 환경윤리 포럼 발표집, 2021.02.25.
- 시사오늘 2014.02.18.일자, “7살 아동에 강제노동…대우 인터내셔널, 국제적 망신” (<http://www.sisaon.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298>) (접속일자: 2021.05.21.).
- 시사오늘 2014.02.18.일자, “7살 아동에 강제노동…대우 인터내셔널, 국제적 망신” (<http://www.sisaon.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298>) (접속일자: 2021.05.21.).
- 이수열, 김유상 (2018), “한국전력공사(KEPCO)의 CSR과 CSV 소생 전략,” *Korea Business Review*, 22(2), 31-51.
- 이수열, 홍미경 (2016), “기업의 사회적 책임, 무책임, 그리고 기업성과: 이론과 측정도구의 타당성에 대한 실증분석,” *경영학연구*, 44(3), 677-711.
- 인천투데이 2013.08.29.일자, “본사 송도 이전 대우인터내셔널, 부산공장 매각 진짜 이유는?” (<http://www.incheontoday.com/news/articleView.html?idxno=25232>) (접속일자: 2021.05.24.).
- 임영균, 이석규 (2019), “배려가 있는 따뜻한 자본주의의 실천: 미래에셋대우의 사회책임투자(SRI) 사례,” *Korea Business Review*, 23(3), 23-48.
- 중앙일보 2011.12.13.일자, “탈 많고 탈 많은 대우인터 ‘버마 가스개발 사업’” (<https://news.joins.com/article/6881064>) (접속일자: 2021.05.21.).
- 포스코 연례기업보고서 2014, 2015 (<https://www.posco.co.kr/homepage/docs/kor6/jsp/irinfo/irdata/s91b60000301.jsp>) (접속일자: 2021.07.23.).
- 포스코 기업시민현장 (2021). (<http://corporatecitizenship.posco.com/citizen/kor/simin/s919w1000100c.jsp>) (접속일자: 2021.07.23.).
- 포스코 홈페이지 (2021). (<https://www.posco.co.kr/homepage/docs/kor6/jsp/esg/initiative/s91b60000311.jsp>) (접속일자: 2021.07.23.).
- 연도별 기업보고서 (<https://www.posco.co.kr/homepage/docs/kor6/jsp/irinfo/irdata/s91b60000301.jsp>) (접속일자: 2021.06.17.).
- 프레지던트미디어 2016.01.23.일자, “미생 모델, 대우인터, 조폐공사 OECD에 제소 당해” (<http://presidentmedia.kr/archives/109>) (접속일자: 2021.05.20.).